

2024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



2024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임영이 | 의료해외진출단장

연구자 이지엽 | 의료해외진출기획팀장

유성현 | 의료해외진출기획팀, 연구원

발간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은 뛰어난 의료기술과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진출 사례를 통해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에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누적 249건의 진출 정보를 분석하여 「2024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통계분석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진출국가별, 진출유형별,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병상규모별 등 다양한 각도로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가 의료 해외진출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작지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의료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국제의료본부 의료해외진출단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차근로



한 눈에 보는
2024 의료 해외진출 현황

Part 1.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01.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20
02.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대상 및 신고절차	21

Part 2.

2024년 의료 해외진출 주요 통계

01. 국내 의료기관 신고 등록 현황	26
02. 진출국가별 신고 현황	27
03.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29
04. 진출과목별 신고 현황	32
05. 의료기관 종별 신고 현황	37
06.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별 신고현황	39
07. 자본투자 형태별 신고 현황	41
08. 특수목적법인 설립여부	42
09.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44
10. 의료 해외진출 연계 인력 고용 현황	45
11. 지역별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	46
12. 의료 해외진출 주요 국가별 현황	48
13. 의료 해외진출 주요 권역별 현황 요약	63

Part 3.

요약 및 시사점

01. 의료 해외진출 최근 5개년 현황 요약	70
02. 의료 해외진출 현황 요약	72
03. 의료 해외진출 현황 시사점	73

표차례



그림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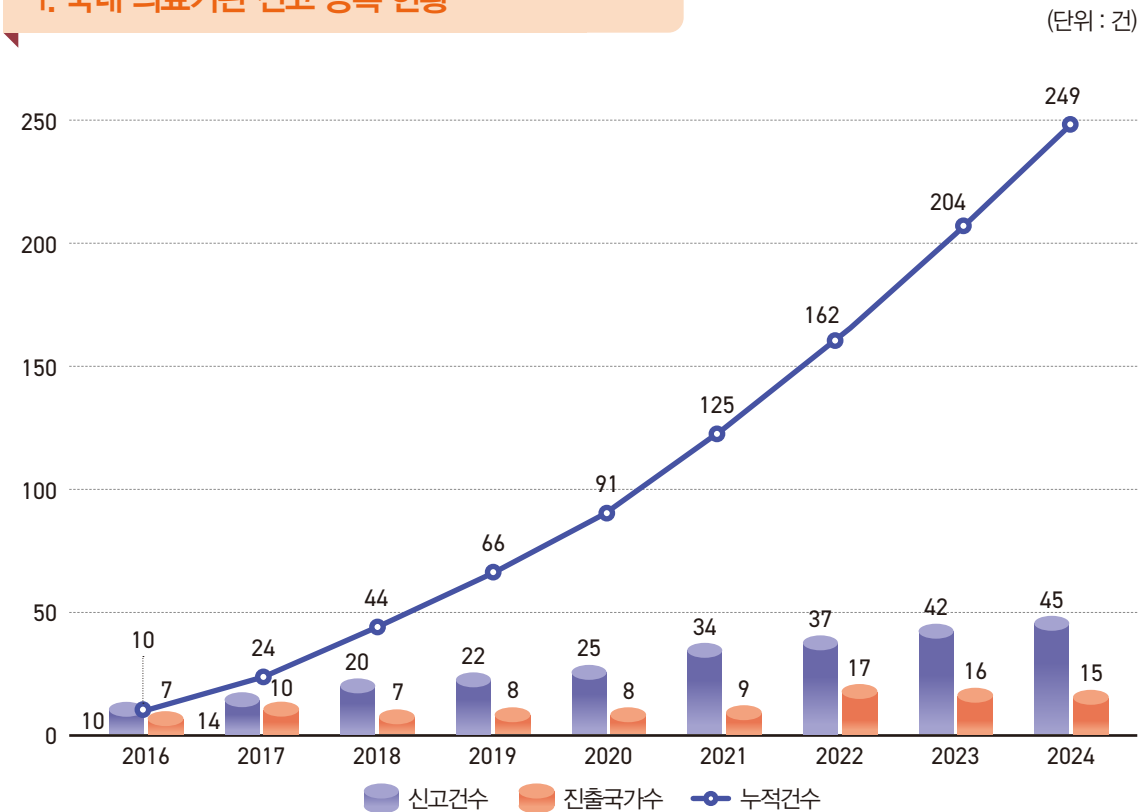


〈표 1〉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 절차	21	[그림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 및 온라인 신청 절차	22	[그림 23]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유형	47
〈표 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신고 현황	26	[그림 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신고 현황	26	[그림 24]	비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유형	47
〈표 3〉	진출국가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28	[그림 3]	의료 해외진출 진출국가별 신고 현황	27	[그림 25]	중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48
〈표 4〉	진출유형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30	[그림 4]	의료 해외진출 진출국가 5개년 신고 현황	27	[그림 26]	중국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48
〈표 5〉	국가별 의료 해외진출 유형	31	[그림 5]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29	[그림 27]	중국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49
〈표 6〉	진료과목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33	[그림 6]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30	[그림 28]	중국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49
〈표 7〉	국가별 의료 해외진출 진료과목	34	[그림 7]	의료 해외진출 진출과목별 신고 현황	32	[그림 29]	베트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51
〈표 8〉	진출유형별 의료 해외진출 진료과목	36	[그림 8]	의료 해외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33	[그림 30]	베트남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51
〈표 9〉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부 종별 신고 현황(2016~2024)	38	[그림 9]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부 종별 신고 현황	37	[그림 31]	베트남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52
〈표 10〉	국가별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종류	38	[그림 10]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종류 5개년 신고 현황	37	[그림 32]	베트남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52
〈표 11〉	병상규모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40	[그림 11]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39	[그림 33]	몽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54
〈표 12〉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40	[그림 12]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 5개년 신고 현황	39	[그림 34]	몽골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54
〈표 13〉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별 자본투자 현황(2016~2024)	42	[그림 13]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40	[그림 35]	몽골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55
〈표 14〉	특수목적법인 연도별 설립 현황(2016~2024)	43	[그림 14]	의료 해외진출 자본투자 형태별 신고 현황	41	[그림 36]	몽골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55
〈표 15〉	특수목적법인 진출유형별 설립 현황	43	[그림 15]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별 자본투자 현황	41	[그림 37]	미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57
〈표 16〉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2016~2024)	44	[그림 16]	의료 해외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신고 현황	42	[그림 38]	미국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57
〈표 17〉	의료 해외진출 연계 국내 파견인력/상주인력 연도별 고용 현황(2016~2024)	45	[그림 17]	해외 특수목적법인 진출유형별 설립 현황	43	[그림 39]	미국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58
〈표 18〉	중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50	[그림 18]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44	[그림 40]	미국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58
〈표 19〉	베트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53	[그림 19]	의료 해외진출 연계 국내인력 고용 현황	45	[그림 41]	카자흐스탄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60
〈표 20〉	몽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56	[그림 20]	의료 해외진출 연계 해외 현지인력 고용 현황	46	[그림 42]	카자흐스탄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60
〈표 21〉	미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59	[그림 21]	의료 해외진출 지역별 신고 현황	46	[그림 43]	카자흐스탄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61
〈표 22〉	카자흐스탄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62	[그림 22]	의료 해외진출 수도권/비수도권 연도별 신고 현황	47	[그림 44]	카자흐스탄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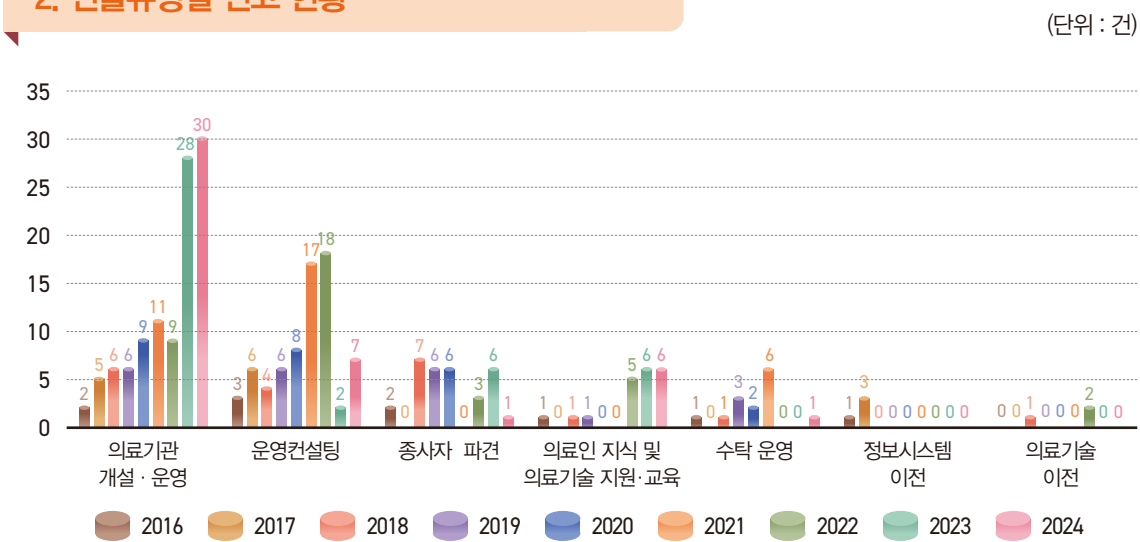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2024 의료 해외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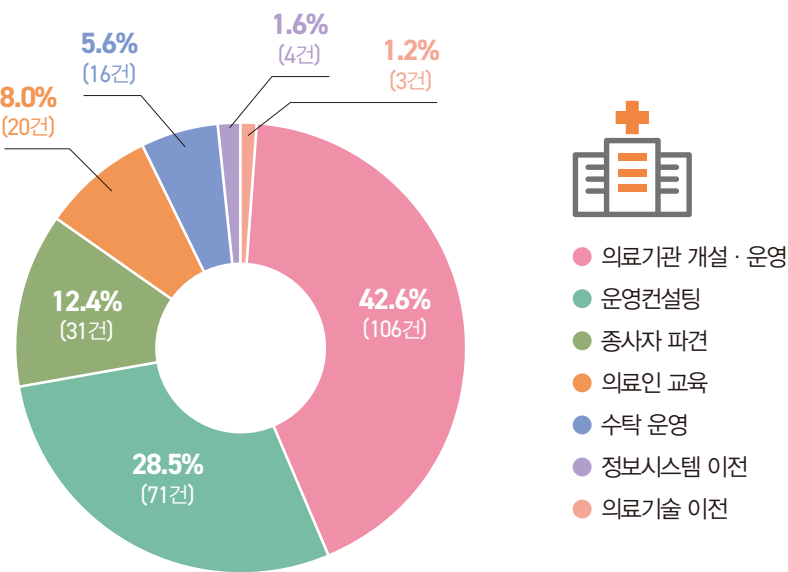
1. 국내 의료기관 신고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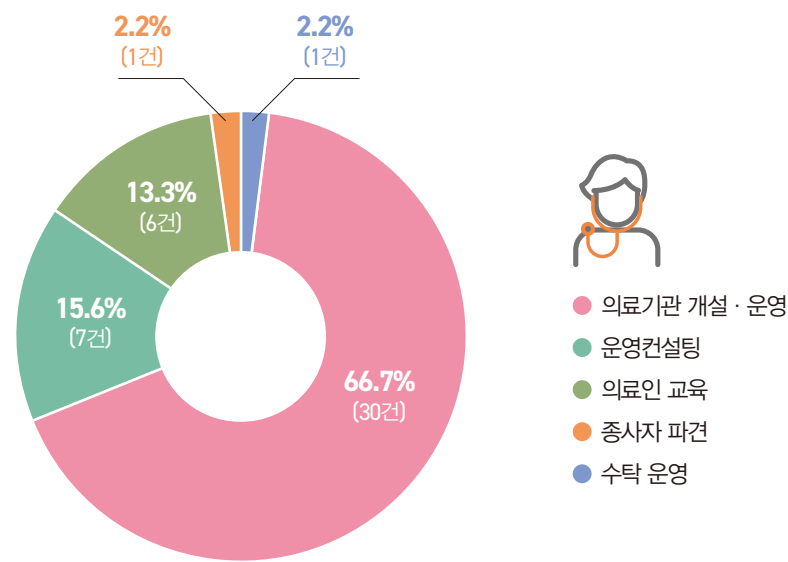
2.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① 진출유형별 신고 건수[2016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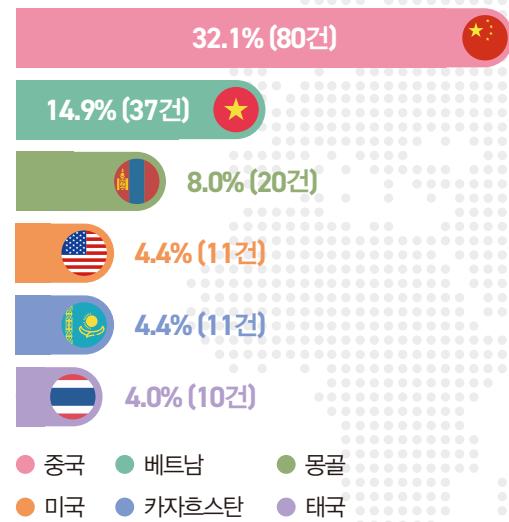
② 진출유형별 신고 건수[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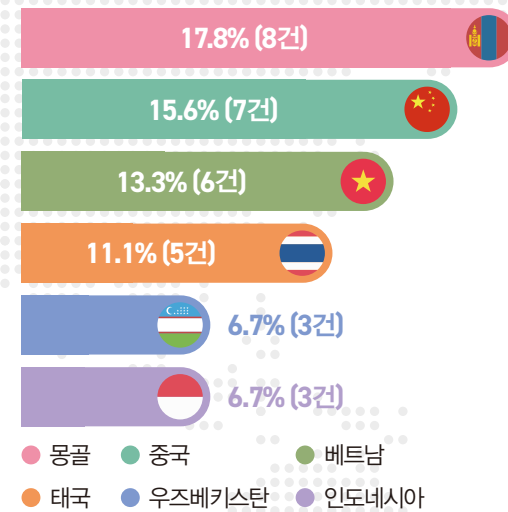


3. 주요 진출국가별 신고 현황

① 주요 진출국가별 신고 등록 현황[2016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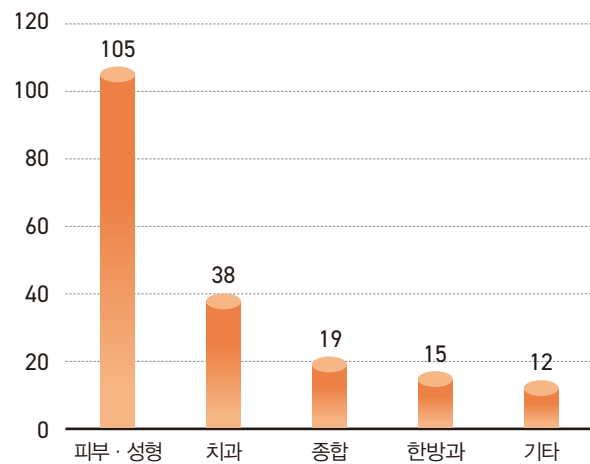


② 주요 진출국가별 신고 등록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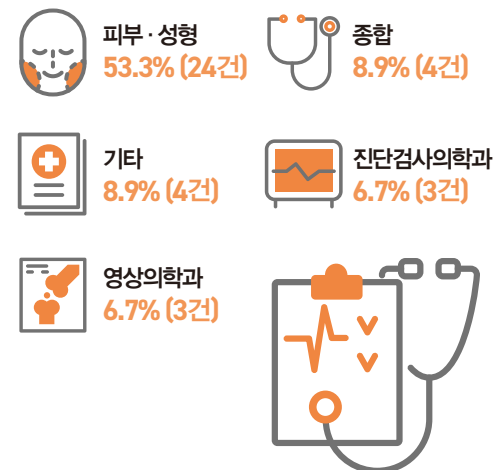


4. 주요 진료과목별 신고 현황

① 주요 진료과목별 신고 현황[2016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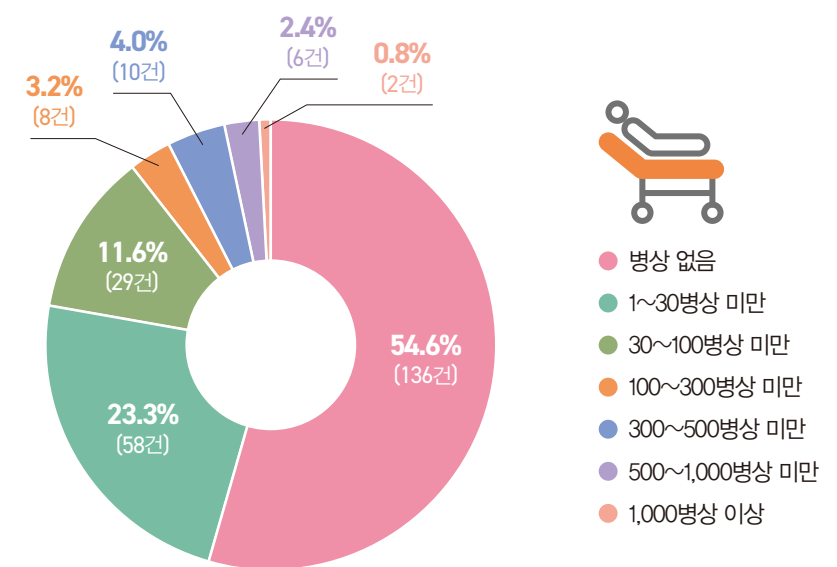


② 주요 진료과목별 신고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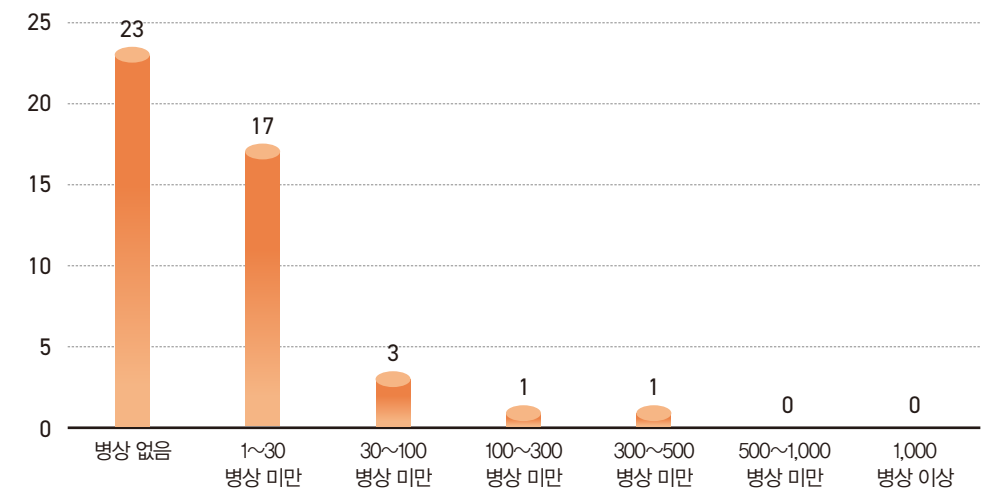


5.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①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2016년~2024년]



②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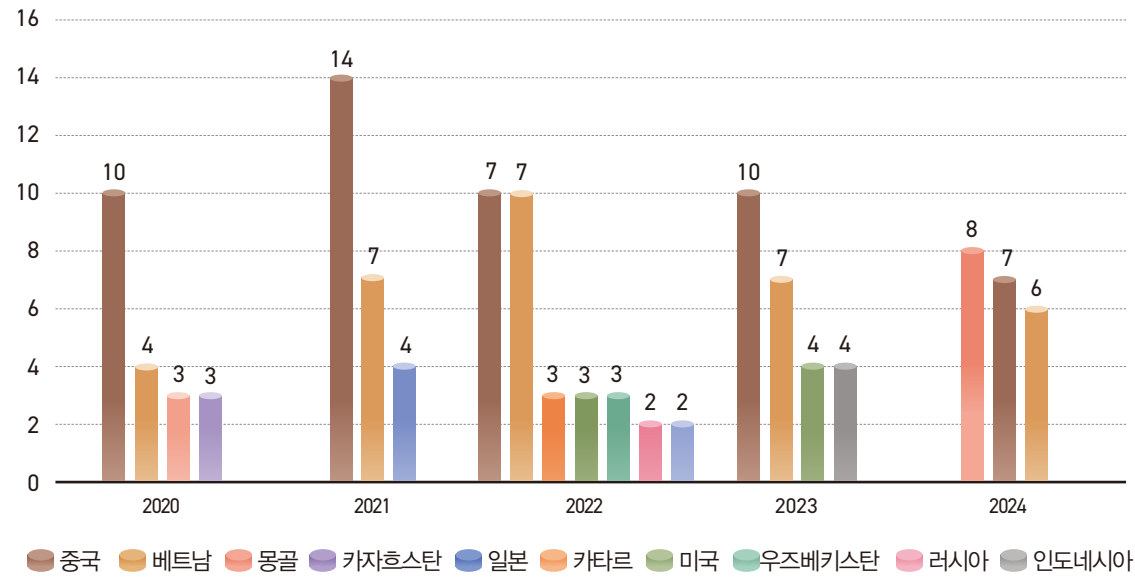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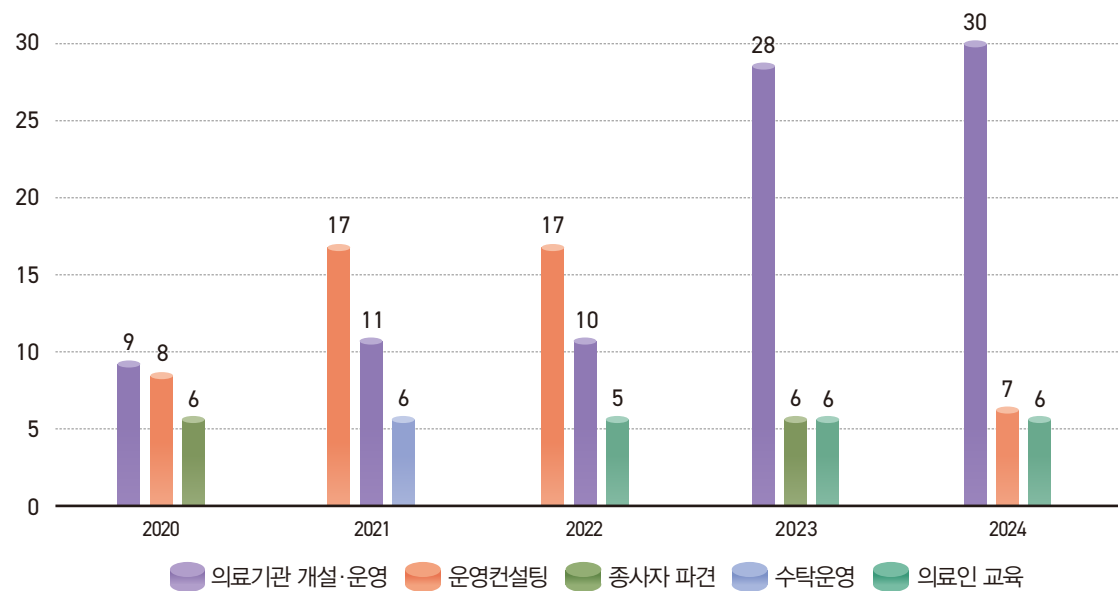
6. 의료 해외진출 최근 5개년 현황

① 진출국가별 현황[2020년~2024년]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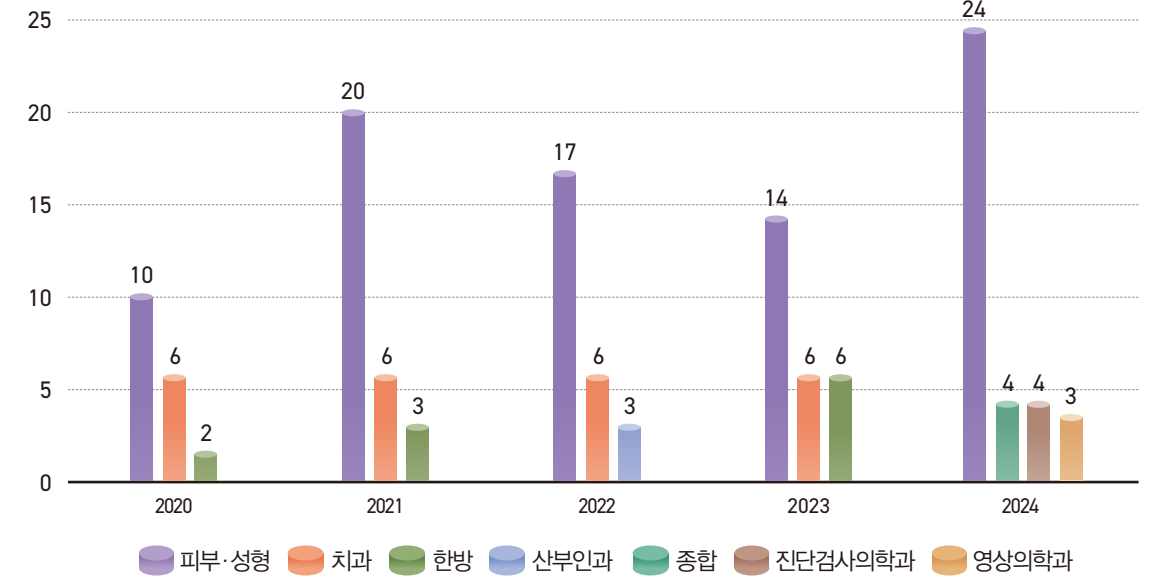


② 진출유형별 현황[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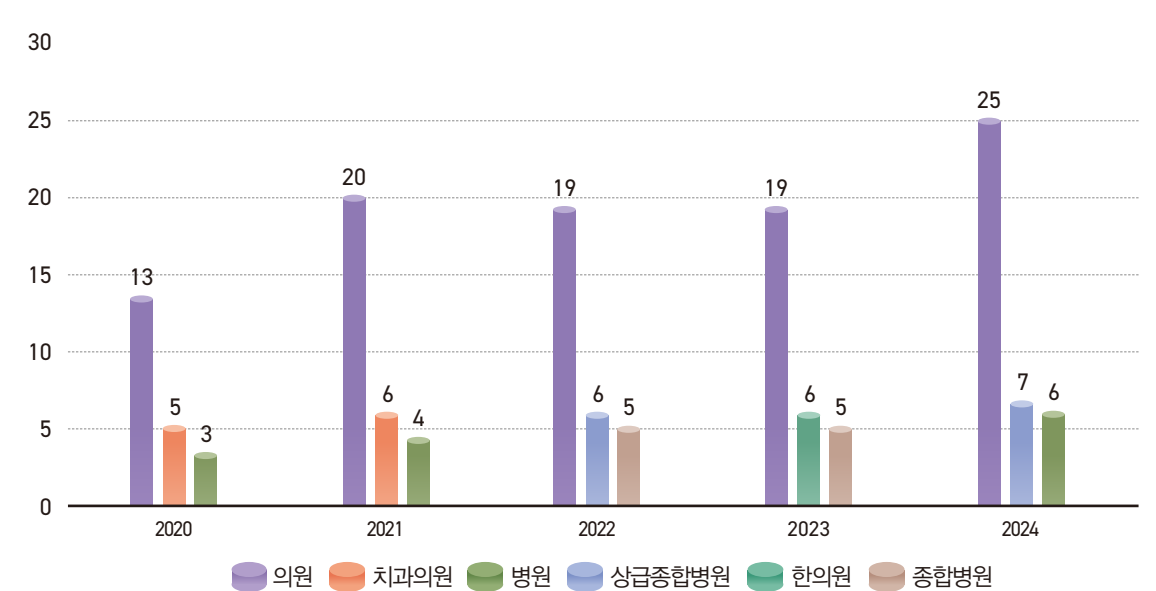
③ 진료과목 현황[2020년~2024년]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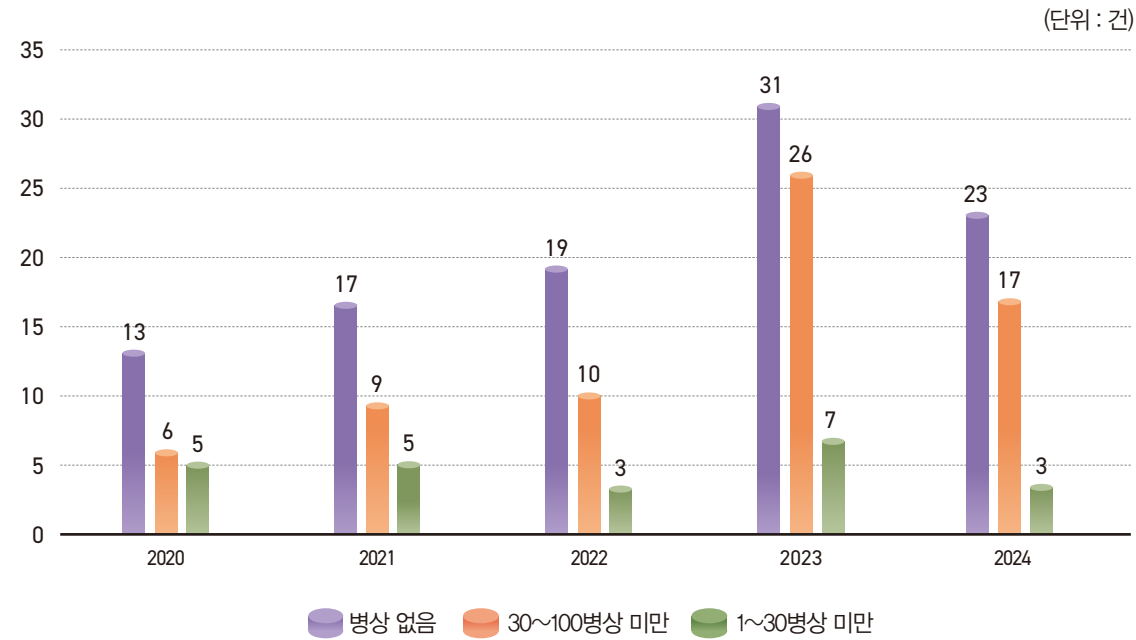
④ 의료기관 종별 현황[2020년~2024년]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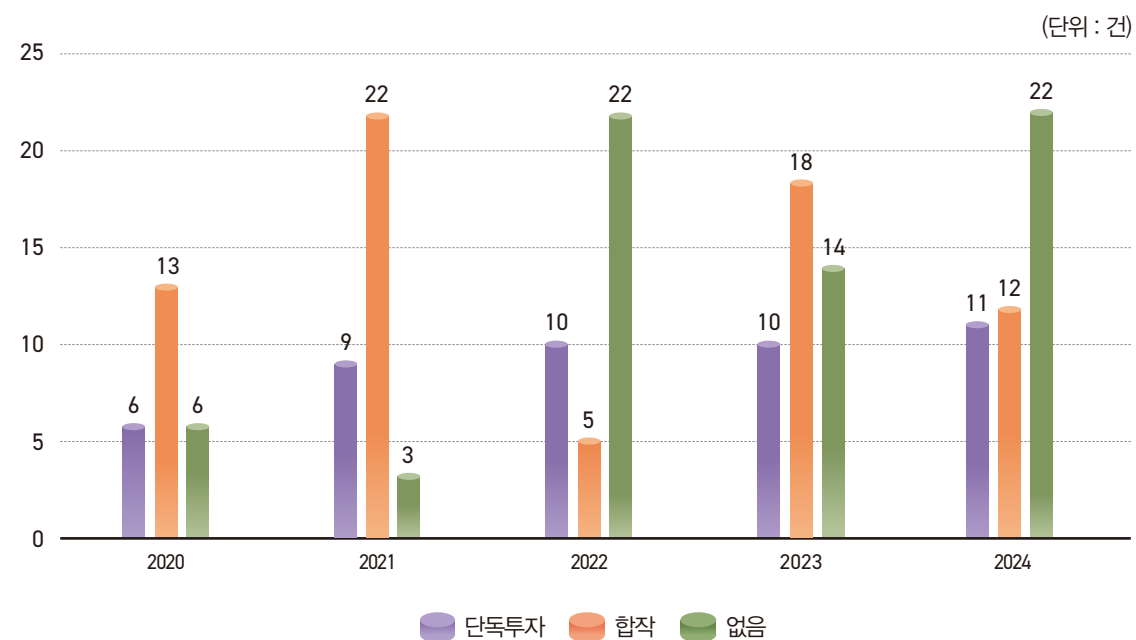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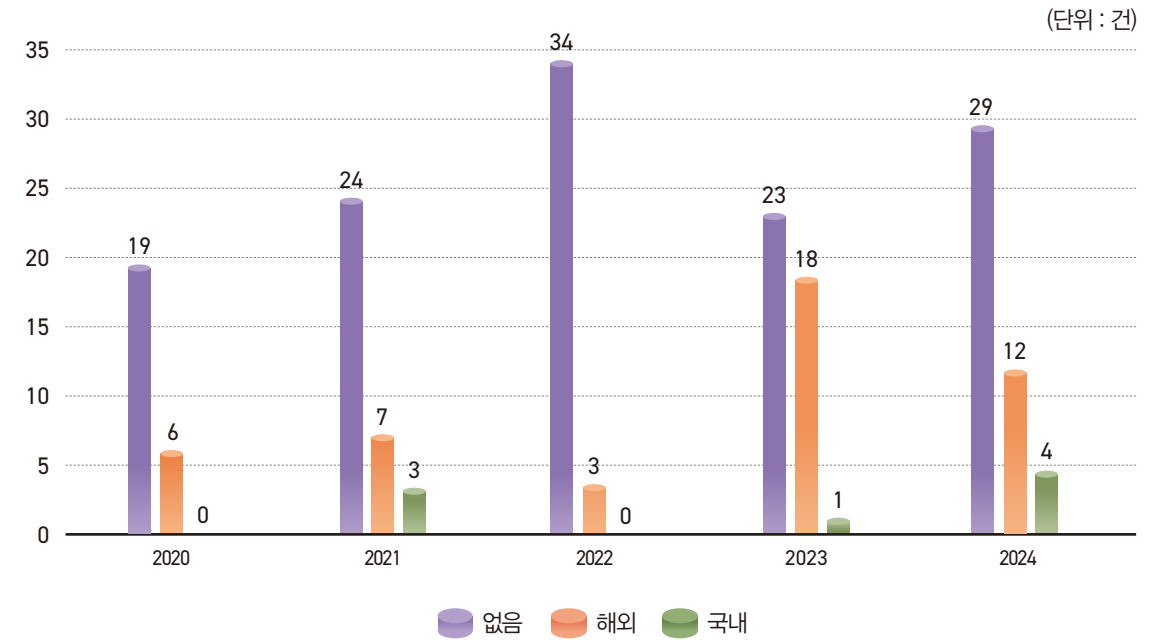
⑤ 진출병상 규모별 현황[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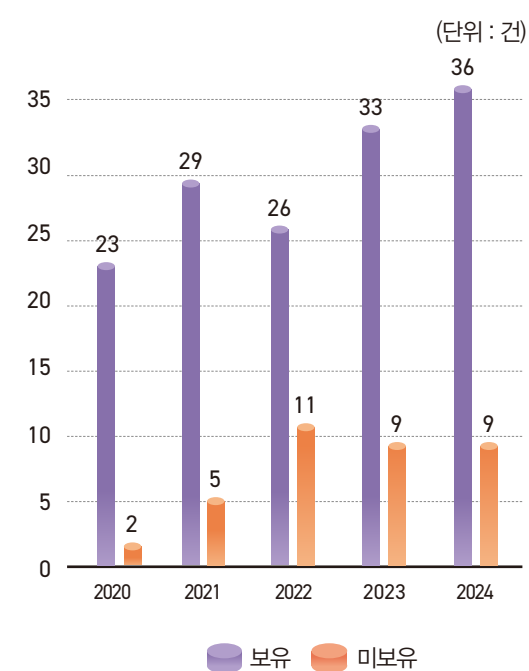
⑥ 자본투자 형태별 현황[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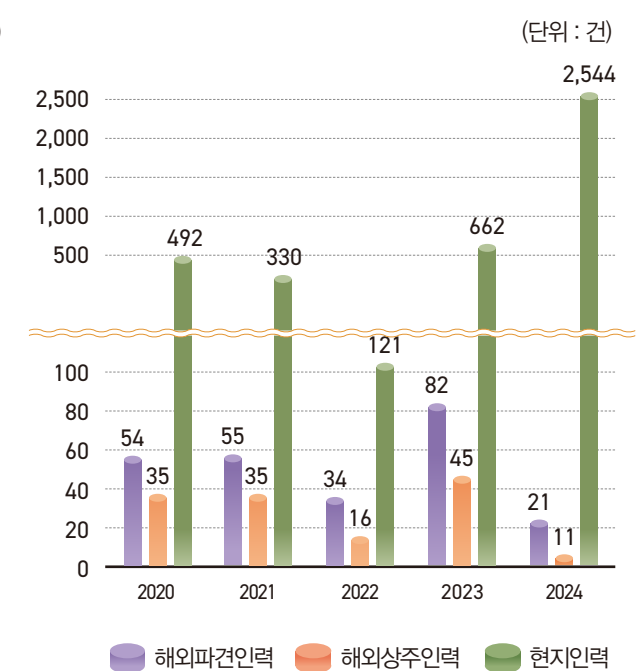
⑦ 특수목적법인별 현황[2020년~2024년]



⑧ 전담부서별 현황[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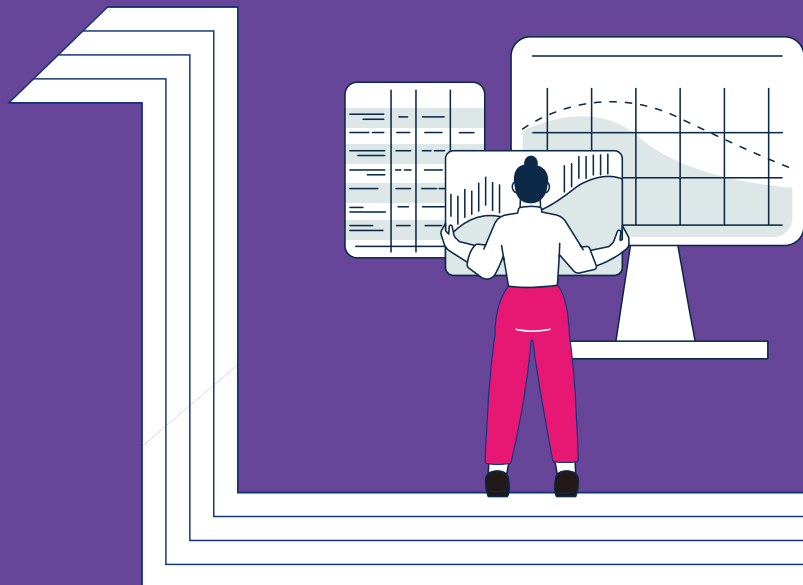


⑨ 인력고용 형태별 현황[2020년~2024년]



Part 1

2024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조사 개요



1.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2.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대상 및 신고절차

01 |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 진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16.6.23 이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 **신고대상자**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 **신고범위**
 - 신고대상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 **신고의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 · 인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시 제재**
 -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7년도부터는 온라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www.khidi.or.kr/kohes) 운영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해짐
 -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는 신고자(의료기관 개설자)의 제출 서류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법인의 경우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의료 해외진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가 필수적임
 - * 단,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은 의료기관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류

법인	개인
공통 작성양식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법인 인감 사용) 2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법인 인감 사용) 첨부서류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사본) 4 의료 해외진출 증빙 자료 – 국외 의료기관 개설 · 운영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국외법인 설립 · 인수 확인증 등 – 그 외 계약을 통한 의료해외진출의 경우 : 해당 계약서 사본(계약서가 국문이 아닌 경우, 국문 요약서 첨부) 5 정관 (* 의료 해외진출 관련사항 포함)	공통 작성양식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2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 첨부서류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사본) 4 의료 해외진출 증빙 자료 – 국외 의료기관 개설 · 운영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국외법인 설립 · 인수 확인증 등 – 그 외 계약을 통한 의료해외진출의 경우 : 해당 계약서 사본(계약서가 국문이 아닌 경우, 국문 요약서 첨부) 5 정관 (해당없음)

02 |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대상 및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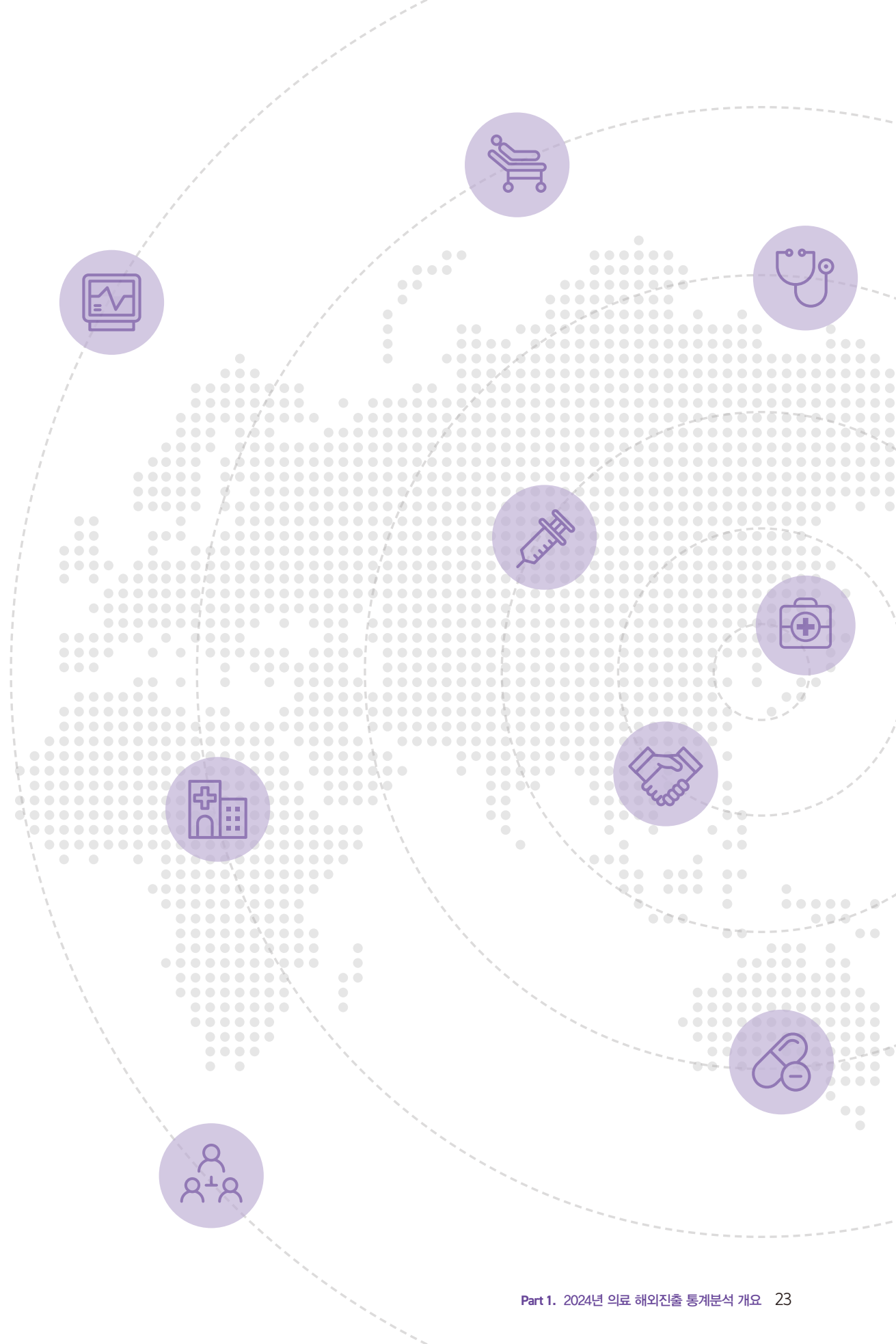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대상)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23) 이후부터 '24년까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249건의 프로젝트

〈표 1〉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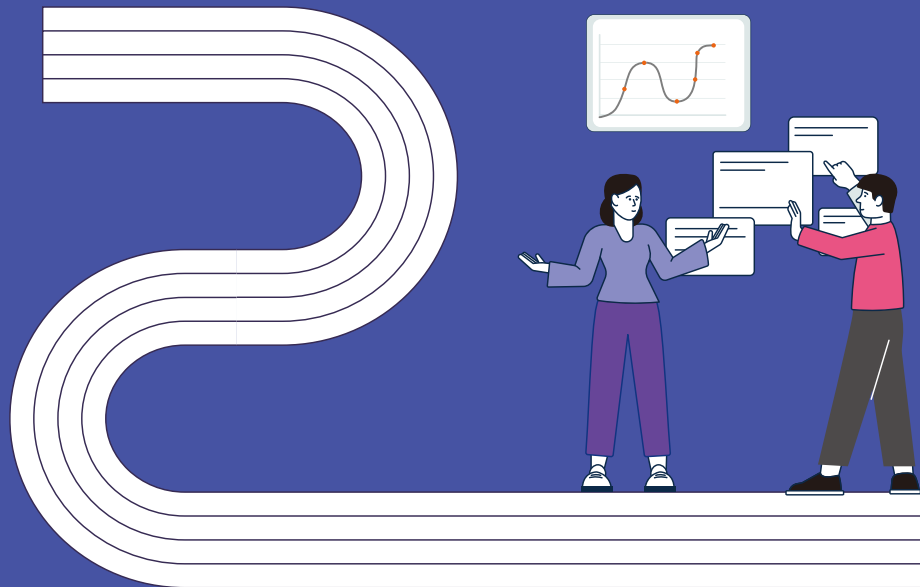


[그림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 및 온라인 신청 절차



Part 2

2024년 의료 해외진출 주요 통계



1. 국내 의료기관 신고 등록 현황
2. 진출국가별 신고 현황
3.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4. 진출과목별 신고 현황
5. 의료기관 종별 신고 현황
6.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별 신고현황
7. 자본투자 형태별 신고 현황
8. 특수목적법인 설립여부
9.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10. 의료 해외진출 연계 인력 고용 현황
11. 지역별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
12. 의료 해외진출 주요 국가별 현황
13. 의료 해외진출 주요 권역별 현황 요약

01 | 국내 의료기관 신고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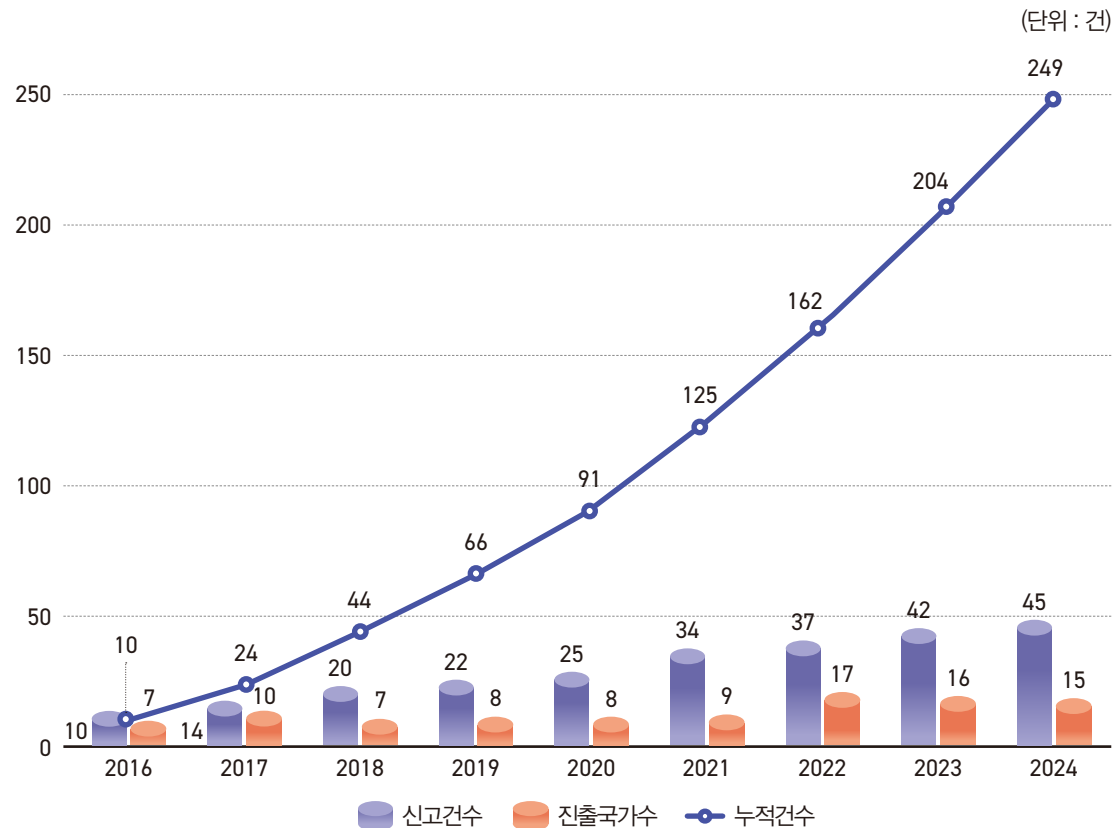


- '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24년 12월 기준으로 총 34개국 249건의 프로젝트가 신고되었으며, 연평균 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6년 10건(4.0%), '17년 14건(5.6%), '18년 20건(8.0%), '19년 22건(8.8%), '20년 25건(10.0%), '21년 34건(13.7%), '22년 37건(14.9%), '23년 42건(16.9%), '24년 45건(18.1%)이 신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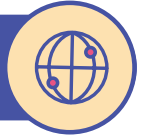
〈표 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신고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고건수	10	14	20	22	25	34	37	42	45
진출국가수	7	10	7	8	8	9	17	16	15
누적건수	10	24	44	66	91	125	162	204	249

[그림 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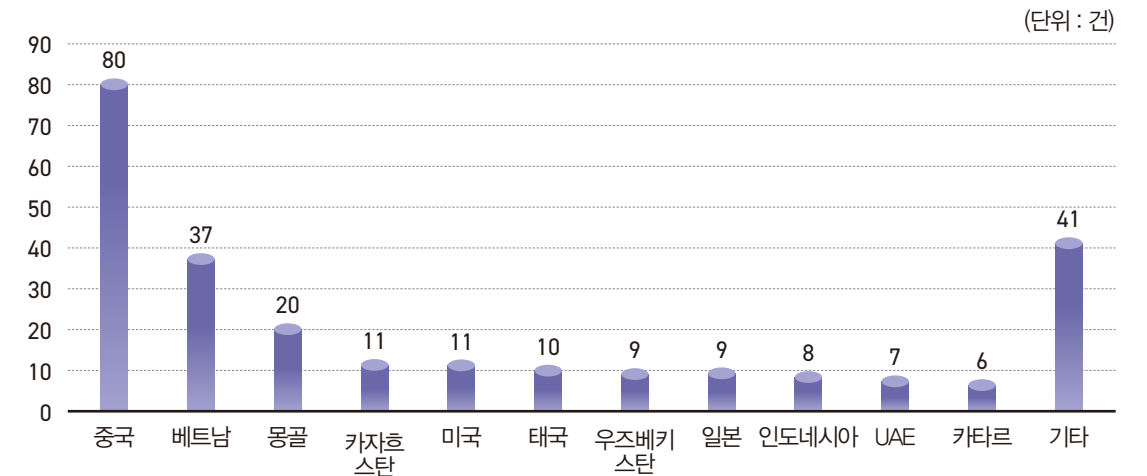


02 | 진출국가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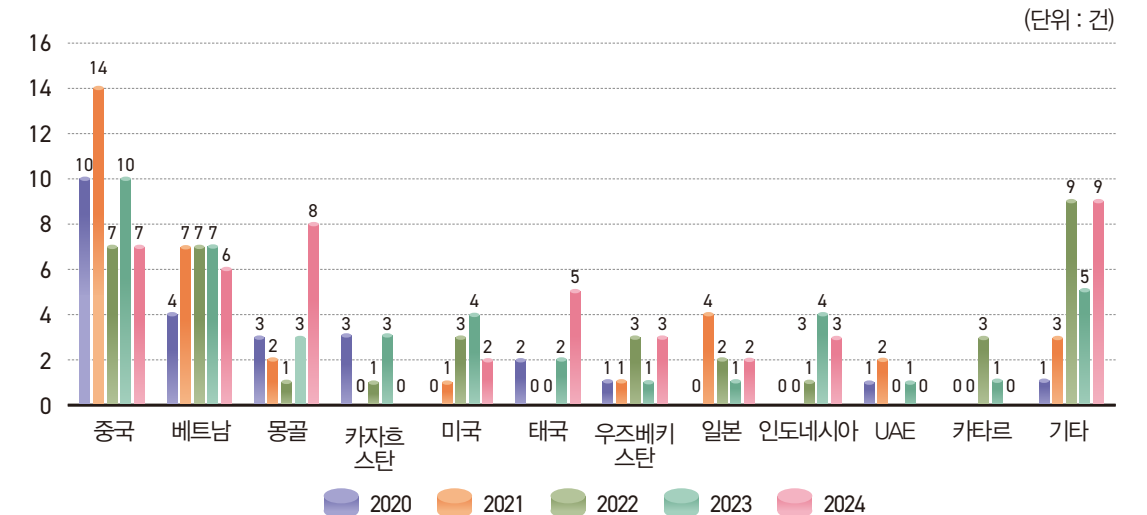


- (진출국가)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의 진출국가 수는 총 34개국이며, 중국이 80건(3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베트남 37건(14.9%), 몽골 20건(8.0%), 카자흐스탄 11건(4.4%), 미국 11건(4.4%), 태국 10건(4.0%), 우즈베키스탄 · 일본 각 9건(3.6%), 인도네시아 8건(3.2%), UAE 7건(2.8%), 카타르 6건(2.4%) 순으로 나타남
- 기타는 캄보디아 5건(2.0%), 러시아 · 싱가포르 각 4건(1.6%), 말레이시아 3건(1.2%), 페루 · 필리핀 · 사우디아라비아 · 캐나다 · 대만 · 호주 각 2건(0.8%),
-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 · 쿠웨이트 · 아르메니아 · 칠레 · 아제르바이잔 · 헝가리 · 미얀마 · 벨라루스 · 말라위 · 라오스 · 스웨덴 · 프랑스 각 1건(0.4%) 등 23개국이 이에 해당됨

[그림 3] 의료 해외진출 진출국가별 신고 현황



[그림 4] 의료 해외진출 진출국가 5개년 신고 현황



〈표 3〉 진출국가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 중국	2	5	12	13	10	14	7	10	7	80 (32.1)
2 베트남	1	1	1	3	4	7	7	7	6	37 (14.9)
3 몽골	0	1	1	1	3	2	1	3	8	20 (8.0)
4 카자흐스탄	2	0	2	0	3	0	1	3	0	11 (4.4)
5 미국	0	1	0	0	0	1	3	4	2	11 (4.4)
6 태국	0	0	0	1	2	0	0	2	5	10 (4.0)
7 일본	0	0	0	0	0	4	2	1	2	9 (3.6)
8 우즈베키스탄	0	0	0	0	1	1	3	1	3	9 (3.6)
9 인도네시아	0	0	0	0	0	0	1	4	3	8 (3.2)
10 UAE	2	0	0	1	1	2	0	1	0	7 (2.8)
11 카타르	1	0	0	1	0	0	3	1	0	6 (2.4)
12 캄보디아	0	0	0	1	0	2	1	1	0	5 (2.0)
13 러시아	0	0	1	1	0	0	2	0	0	4 (1.6)
14 싱가포르	0	0	2	0	0	0	0	0	2	4 (1.6)
15 말레이시아	0	1	1	0	0	0	1	0	0	3 (1.2)
16 페루	1	1	0	0	0	0	0	0	0	2 (0.8)
17 사우디아라비아	0	0	0	0	0	0	1	1	0	2 (0.8)
18 호주	0	0	0	0	0	0	1	0	1	2 (0.8)
19 필리핀	0	0	0	0	0	0	1	0	1	2 (0.8)
20 캐나다	0	0	0	0	0	0	0	1	1	2 (0.8)
21 대만	0	0	0	0	0	0	0	0	2	2 (0.8)
22 방글라데시	1	0	0	0	0	0	0	0	0	1 (0.4)
23 스리랑카	0	1	0	0	0	0	0	0	0	1 (0.4)
24 쿠웨이트	0	1	0	0	0	0	0	0	0	1 (0.4)
25 아르메니아	0	1	0	0	0	0	0	0	0	1 (0.4)
26 칠레	0	1	0	0	0	0	0	0	0	1 (0.4)
27 아제르바이잔	0	0	0	0	1	0	0	0	0	1 (0.4)
28 헝가리	0	0	0	0	0	1	0	0	0	1 (0.4)
29 미얀마	0	0	0	0	0	0	1	0	0	1 (0.4)
30 벨라루스	0	0	0	0	0	0	1	0	0	1 (0.4)
31 말라위	0	0	0	0	0	0	0	1	0	1 (0.4)
32 라오스	0	0	0	0	0	0	0	1	0	1 (0.4)
33 스웨덴	0	0	0	0	0	0	0	0	1	1 (0.4)
34 프랑스	0	0	0	0	0	0	0	0	1	1 (0.4)
합계	10	14	20	22	25	34	37	42	45	249 (100)

03 |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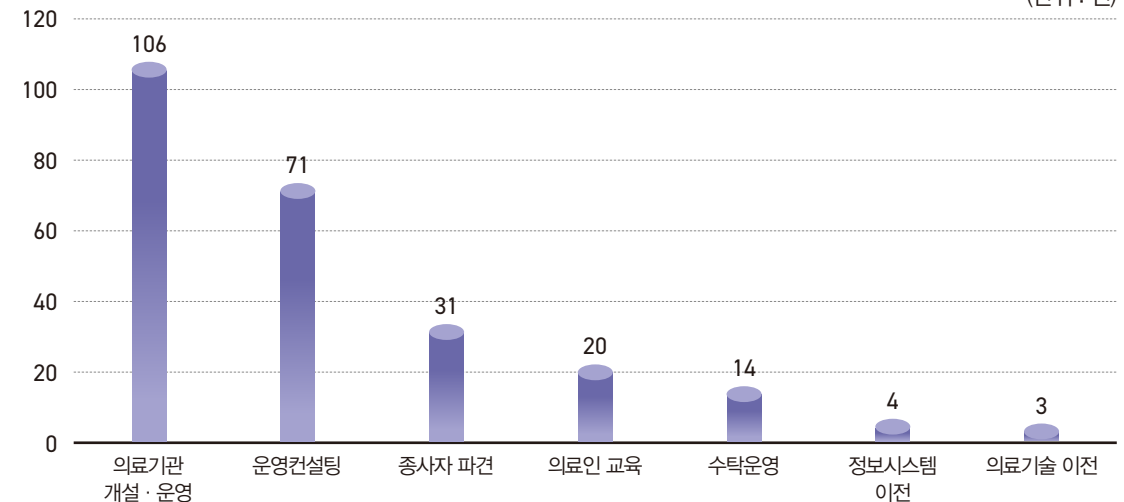
- (진출유형)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을 진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106건(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운영컨설팅 71건(28.5%), 종사자 파견 31건(12.4%), 의료인 교육 20건(8.0%), 수탁운영 14건(5.6%), 정보시스템 이전 4건(1.6%), 의료기술 이전 3건(1.2%) 순으로 나타남
 - 진출유형은 신고인이 제출한 의료해외진출 신고서(의료 해외진출법 시행규칙 별제 제1호서식) 내 진출구분에 따르며, 진출유형이 2개 이상인 189건(75.9%)은 대표 진출유형으로 집계함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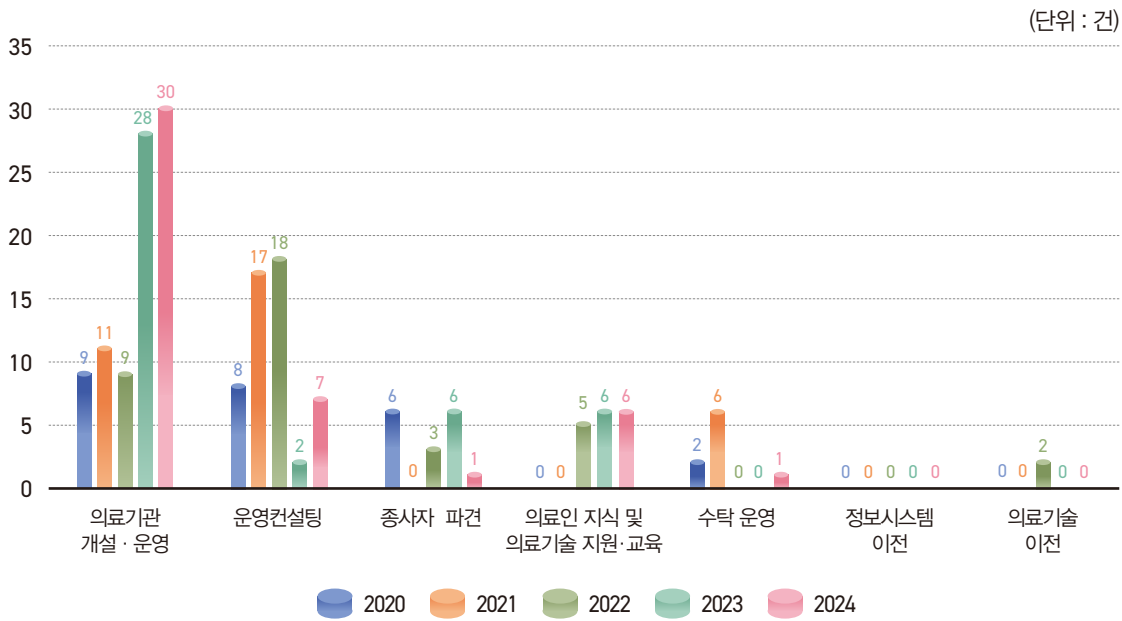
- ①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해외직접투자(단독투자, 합작투자)를 통해 의료기관을 신설 또는 인수합병
- ②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 국외 의료기관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③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④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⑤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 무형자산(의료기술, 브랜드) 이전의 대가로 로열티를 수령
- ⑥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 이전 : 병원정보시스템(HIS) 및 원격의료시스템(CT)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⑦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 ⑧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
- ⑨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그림 5]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그림 6]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표 4〉 진출유형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의료기관 개설·운영	2	5	6	6	9	11	9	28	30	106	(42.6)
운영컨설팅	3	6	4	6	8	17	18	2	7	71	(28.5)
종사자 파견	2	0	7	6	6	0	3	6	1	31	(12.4)
의료인 교육	1	0	1	1	0	0	5	6	6	20	(8.0)
수탁 운영	1	0	1	3	2	6	0	0	1	14	(5.6)
정보시스템 이전	1	3	0	0	0	0	0	0	0	4	(1.6)
의료기술 이전	0	0	1	0	0	0	2	0	0	3	(1.2)
합계	10	14	20	22	25	34	37	42	45	249	(100)

〈표 5〉 국가별 의료 해외진출유형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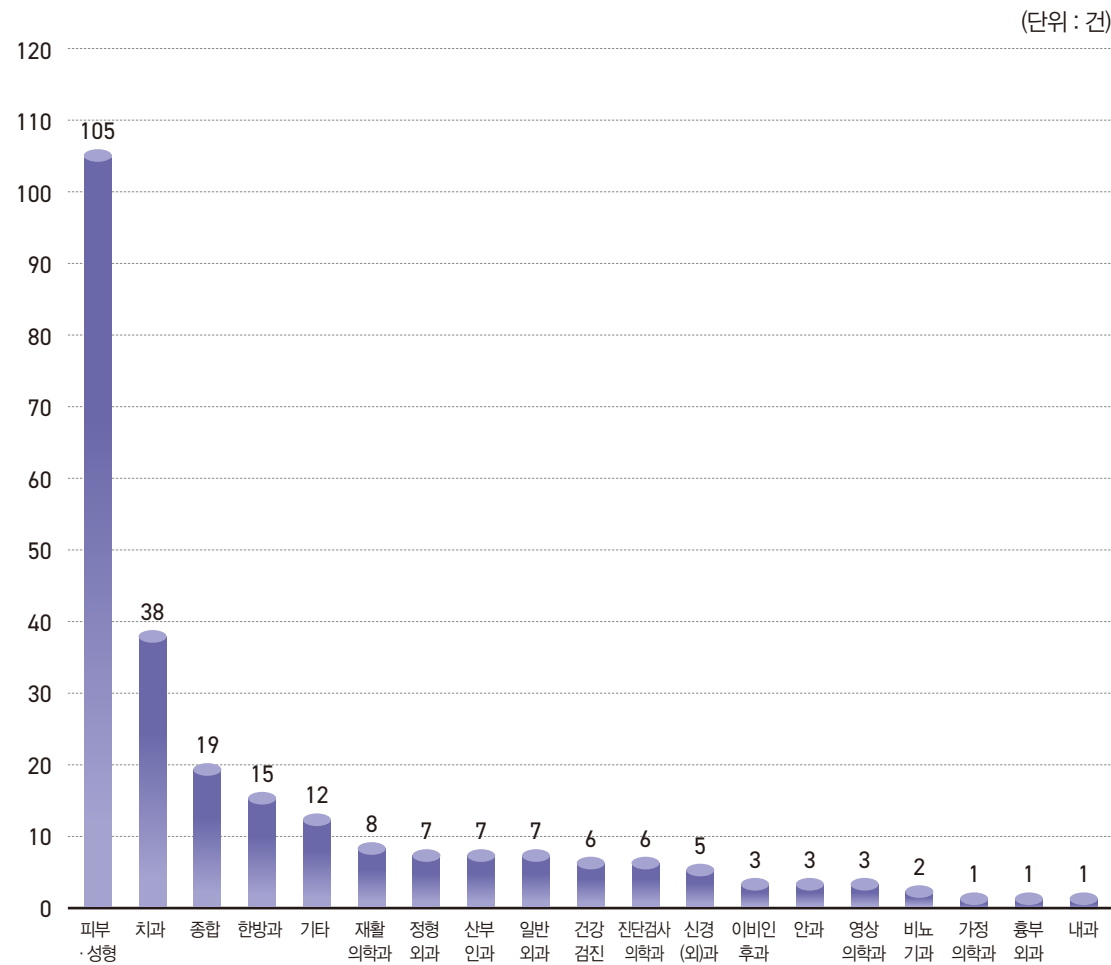
구분	의료기관 개설·운영	운영 컨설팅	종사자 파견	의료인 교육	수탁 운영	정보시스템 이전	의료기술 이전	합계
중국	22	29	18	5	5	0	1	80 (32.1)
베트남	18	13	5	0	1	0	0	37 (14.9)
몽골	6	5	3	6	0	0	0	20 (8.0)
미국	7	1	1	0	0	1	1	11 (4.4)
카자흐스탄	5	2	2	1	0	0	1	11 (4.4)
태국	9	1	0	0	0	0	0	10 (4.0)
우즈베키스탄	4	1	0	3	1	0	0	9 (3.6)
일본	6	3	0	0	0	0	0	9 (3.6)
인도네시아	7	1	0	0	0	0	0	8 (3.2)
UAE	2	0	0	2	3	0	0	7 (2.8)
카타르	2	3	0	0	1	0	0	6 (2.4)
캄보디아	2	1	0	0	2	0	0	5 (2.0)
러시아	2	1	0	1	0	0	0	4 (1.6)
싱가포르	3	1	0	0	0	0	0	4 (1.6)
말레이시아	2	1	0	0	0	0	0	3 (1.2)
대만	1	0	0	1	0	0	0	2 (0.8)
사우디아라비아	1	0	0	1	0	0	0	2 (0.8)
캐나다	2	0	0	0	0	0	0	2 (0.8)
페루	0	0	0	0	0	2	0	2 (0.8)
필리핀	1	1	0	0	0	0	0	2 (0.8)
호주	1	0	1	0	0	0	0	2 (0.8)
라오스	0	1	0	0	0	0	0	1 (0.4)
말라위	1	0	0	0	0	0	0	1 (0.4)
미얀마	0	1	0	0	0	0	0	1 (0.4)
방글라데시	0	1	0	0	0	0	0	1 (0.4)
벨라루스	0	1	0	0	0	0	0	1 (0.4)
스리랑카	0	1	0	0	0	0	0	1 (0.4)
스웨덴	1	0	0	0	0	0	0	1 (0.4)
아르메니아	0	1	0	0	0	0	0	1 (0.4)
아제르바이잔	0	0	1	0	0	0	0	1 (0.4)
칠레	0	0	0	0	0	1	0	1 (0.4)
쿠웨이트	1	0	0	0	0	0	0	1 (0.4)
프랑스	0	1	0	0	0	0	0	1 (0.4)
헝가리	0	0	0	0	1	0	0	1 (0.4)
합계	106	71	31	20	14	4	3	249 (100)

04 | 진료과목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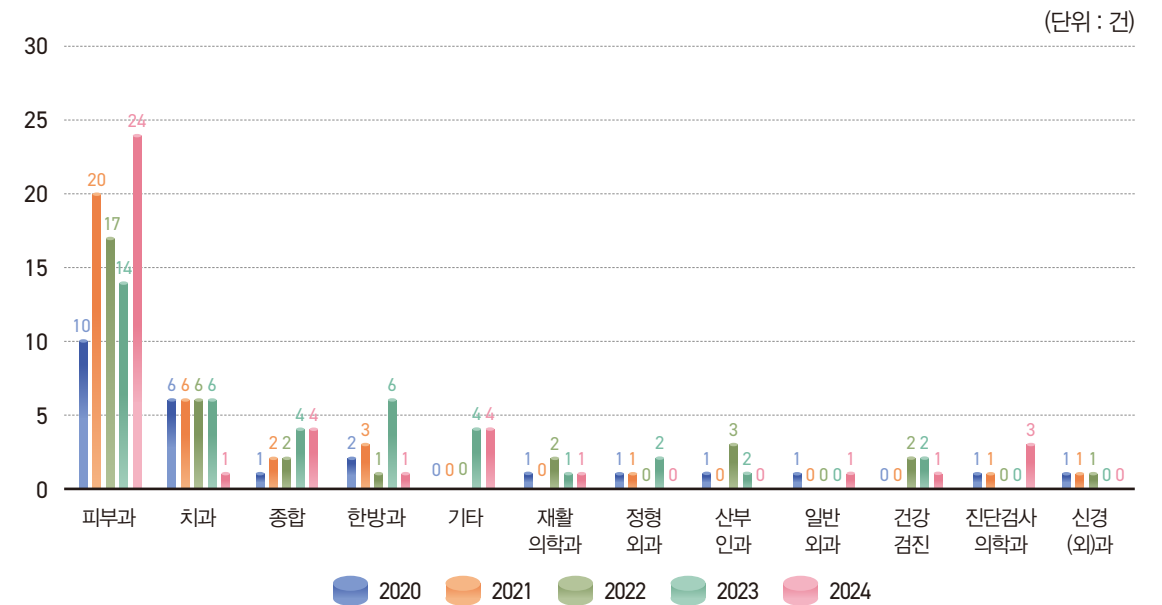


- (진료과목)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피부·성형이 105건(4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치과 38건(15.3%), 종합 19건(7.6%), 한방과 15건(6.0%), 기타 12건(4.8%), 재활의학과 8건(3.2%), 정형외과·산부인과·일반외과 각 7건(2.8%), 건강검진·진단검사의학과 각 6건(2.4%), 신경(외)과 5건(2.0%)으로 나타남
 - *기타는 연수, 컨설팅, 정보시스템 등으로 진료과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
 - 이비인후과·안과·영상의학과 각 3건(1.2%), 비뇨기과 2건(0.8%), 가정의학과·내과·흉부외과 각 1건(0.4%)이 이에 해당됨
 - 진료과목은 신고인이 제출한 대표 진출과목을, 종합은 5개 이상의 진료과가 진출한 경우를 의미함

[그림 7] 의료 해외진출 진료과목별 신고 현황



[그림 8] 의료 해외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표 6〉 진료과목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피부·성형	4	3	3	10	10	20	17	14	24	105 (42.2)
치과	0	2	6	5	6	6	6	6	1	38 (15.3)
종합	2	2	2	0	1	2	2	4	4	19 (7.6)
한방과	0	0	2	0	2	3	1	6	1	15 (6.0)
기타	1	3	0	0	0	0	0	4	4	12 (4.8)
재활의학과	0	0	1	2	1	0	2	1	1	8 (3.2)
정형외과	0	0	0	3	1	1	0	2	0	7 (2.8)
산부인과	0	1	1	0	1	0	3	1	0	7 (2.8)
일반외과	2	0	2	1	1	0	0	0	1	7 (2.8)
건강검진	0	1	0	0	0	0	2	2	1	6 (2.4)
진단검사의학과	0	1	0	0	1	1	0	0	3	6 (2.4)
신경(외)과	1	0	1	0	1	1	1	0	0	5 (2.0)
이비인후과	0	0	0	0	0	0	2	1	0	3 (1.2)
안과	0	0	0	1	0	0	0	1	1	3 (1.2)
영상의학과	0	0	0	0	0	0	0	0	3	3 (1.2)
비뇨기과	0	0	1	0	0	0	0	0	1	2 (0.8)
가정의학과	0	1	0	0	0	0	0	0	0	1 (0.4)
흉부외과	0	0	1	0	0	0	0	0	0	1 (0.4)
내과	0	0	0	0	0	0	1	0	0	1 (0.4)
합계	10	14	20	22	25	34	37	42	45	249 (100)

〈표 7〉 국가별 의료 해외진출 진료과목

(단위 : 건, %)

구분	피부 · 성형	치과	종합	한방과	기타	재활 의학과	정형 외과	산부 인과	일반 외과	건강 검진
중국	47	21	3	2	1	2	1	0	1	1
베트남	19	9	1	2	0	0	0	1	0	1
몽골	3	0	1	0	3	2	1	2	3	2
미국	0	0	1	5	1	0	0	1	0	0
카자흐스탄	0	0	1	2	0	1	1	0	3	0
태국	10	0	0	0	0	0	0	0	0	0
우즈베키스탄	0	2	2	1	0	0	0	1	0	0
일본	8	0	1	0	0	0	0	0	0	0
인도네시아	7	0	0	0	0	0	0	0	0	1
UAE	0	0	2	0	1	0	3	0	0	0
카타르	2	1	0	0	0	1	1	0	0	1
캄보디아	3	1	1	0	0	0	0	0	0	0
러시아	0	1	0	0	0	1	0	1	0	0
싱가포르	0	2	1	0	0	0	0	0	0	0
말레이시아	1	0	0	0	0	1	0	0	0	0
대만	1	0	0	0	0	0	0	0	0	0
사우디아라비아	1	0	0	0	1	0	0	0	0	0
캐나다	0	0	0	2	0	0	0	0	0	0
페루	0	0	0	0	2	0	0	0	0	0
필리핀	1	0	1	0	0	0	0	0	0	0
호주	0	0	0	0	1	0	0	1	0	0
라오스	0	0	0	0	1	0	0	0	0	0
말라위	0	1	0	0	0	0	0	0	0	0
미얀마	1	0	0	0	0	0	0	0	0	0
방글라데시	0	0	1	0	0	0	0	0	0	0
벨라루스	0	0	1	0	0	0	0	0	0	0
스리랑카	0	0	0	0	0	0	0	0	0	0
스웨덴	1	0	0	0	0	0	0	0	0	0
아르메니아	0	0	1	0	0	0	0	0	0	0
아제르바이잔	0	0	0	1	0	0	0	0	0	0
칠레	0	0	0	0	1	0	0	0	0	0
쿠웨이트	0	0	0	0	0	0	0	0	0	0
프랑스	0	0	0	0	0	0	0	0	0	0
헝가리	0	0	1	0	0	0	0	0	0	0
합계	105	38	19	15	12	8	7	7	7	6

(단위 : 건, %)

구분	진단검사 의학과	신경 (외)과	이비인 후과	안과	영상 의학과	비뇨 기과	가정 의학과	내과	흉부 외과	합계
중국	0	0	0	0	0	1	0	0	0	80 (32.1)
베트남	1	0	0	3	0	0	0	0	0	37 (14.9)
몽골	1	1	0	0	0	0	0	0	1	20 (8.0)
미국	1	0	2	0	0	0	0	0	0	11 (4.4)
카자흐스탄	1	1	1	0	0	0	0	0	0	11 (4.4)
태국	0	0	0	0	0	0	0	0	0	10 (4.0)
우즈베키스탄	1	1	0	0	1	0	0	0	0	9 (3.6)
일본	0	0	0	0	0	0	0	0	0	9 (3.6)
인도네시아	0	0	0	0	0	0	0	0	0	8 (3.2)
UAE	0	1	0	0	0	0	0	0	0	7 (2.8)
카타르	0	0	0	0	0	0	0	0	0	6 (2.4)
캄보디아	0	0	0	0	0	0	0	0	0	5 (2.0)
러시아	0	0	0	0	0	0	0	1	0	4 (1.6)
싱가포르	0	0	0	0	1	0	0	0	0	4 (1.6)
말레이시아	0	1	0	0	0	0	0	0	0	3 (1.2)
대만	0	0	0	0	0	1	0	0	0	2 (0.8)
사우디아라비아	0	0	0	0	0	0	0	0	0	2 (0.8)
캐나다	0	0	0	0	0	0	0	0	0	2 (0.8)
페루	0	0	0	0	0	0	0	0	0	2 (0.8)
필리핀	0	0	0	0	0	0	0	0	0	2 (0.8)
호주	0	0	0	0	0	0	0	0	0	2 (0.8)
라오스	0	0	0	0	0	0	0	0	0	1 (0.4)
말라위	0	0	0	0	0	0	0	0	0	1 (0.4)
미얀마	0	0	0	0	0	0	0	0	0	1 (0.4)
방글라데시	0	0	0	0	0	0	0	0	0	1 (0.4)
벨라루스	0	0	0	0	0	0	0	0	0	1 (0.4)
스리랑카	1	0	0	0	0	0	0	0	0	1 (0.4)
스웨덴	0	0	0	0	0	0	0	0	0	1 (0.4)
아르메니아	0	0	0	0	0	0	0	0	0	1 (0.4)
아제르바이잔	0	0	0	0	0	0	0	0	0	1 (0.4)
칠레	0	0	0	0	0	0	0	0	0	1 (0.4)
쿠웨이트	0	0	0	0	0	0	1	0	0	1 (0.4)
프랑스	0	0	0	0	1	0	0	0	0	1 (0.4)
헝가리	0	0	0	0	0	0	0	0	0	1 (0.4)
합계	6	5	3	3	3	2	1	1	1	249 (100)

〈표 8〉 진출유형별 의료 해외진출 진료과목

(단위 : 건, %)

구분	의료기관 개설·운영	운영 컨설팅	종사자 파견	의료인 교육	수탁 운영	의료기술 이전	정보시스템 이전	합계
피부·성형	45	47	5	3	4	1	0	105 (42.2)
치과	16	4	15	0	3	0	0	38 (15.3)
종합	11	3	1	2	2	0	0	19 (7.6)
한방과	13	0	1	0	1	0	0	15 (6.0)
기타	1	2	0	5	0	0	4	12 (4.8)
재활의학과	3	0	1	3	0	1	0	8 (3.2)
정형외과	3	0	1	0	3	0	0	7 (2.8)
산부인과	4	0	2	1	0	0	0	7 (2.8)
일반외과	1	2	3	1	0	0	0	7 (2.8)
건강검진	2	4	0	0	0	0	0	6 (2.4)
진단검사의학과	2	3	0	0	1	0	0	6 (2.4)
신경(외)과	1	2	0	2	0	0	0	5 (2.0)
이비인후과	0	1	0	1	0	1	0	3 (1.2)
안과	3	0	0	0	0	0	0	3 (1.2)
영상의학과	0	3	0	0	0	0	0	3 (1.2)
비뇨기과	0	0	1	1	0	0	0	2 (0.8)
가정의학과	1	0	0	0	0	0	0	1 (0.4)
내과	0	0	0	1	0	0	0	1 (0.4)
흉부외과	0	0	1	0	0	0	0	1 (0.4)
합계	106	71	31	20	14	3	4	249 (100)

05 | 의료기관 종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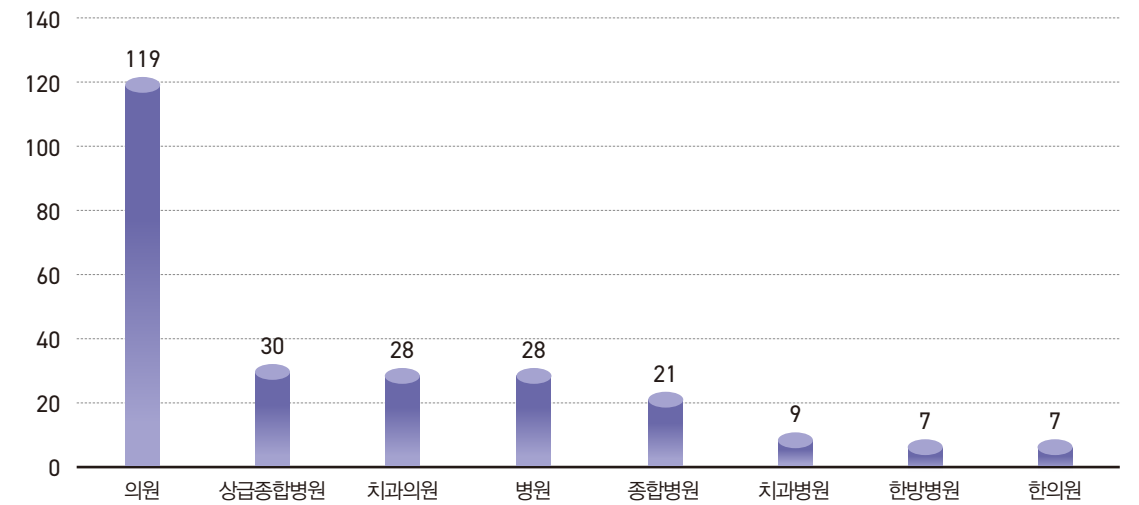


- (의료기관 종별)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19건(47.8%)으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상급종합병원 30건(12.0%), 치과의원·병원 각 28건(11.2%), 종합병원 21건(8.4%), 치과병원 9건(3.6%), 한방병원·한의원 각 7건(2.8%)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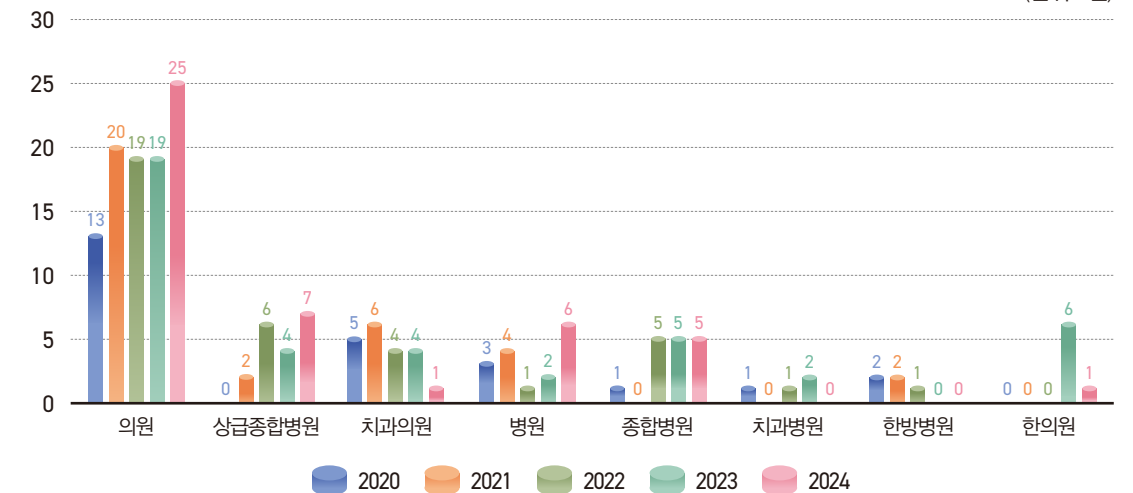
[그림 9]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부 종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그림 10]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종류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 건)



〈표 9〉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세부 종별 신고 현황(2016~2024)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의원	3	4	5	11	13	20	19	19	25	119 (47.8)
상급종합병원	5	5	1	0	0	2	6	4	7	30 (12.0)
치과의원	0	0	6	2	5	6	4	4	1	28 (11.2)
병원	1	3	3	5	3	4	1	2	6	28 (11.2)
종합병원	1	0	3	1	1	0	5	5	5	21 (8.4)
치과병원	0	2	0	3	1	0	1	2	0	9 (3.6)
한방병원	0	0	2	0	2	2	1	0	0	7 (2.8)
한의원	0	0	0	0	0	0	0	6	1	7 (2.8)
합계	10	14	20	22	25	34	37	42	45	249 (100)

〈표 10〉 국가별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 종류

(단위 : 건, %)

구분	의원	상급 종합병원	치과 의원	병원	종합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한의원	합계
중국	47	3	15	4	3	6	1	1	80 (32.1)
베트남	20	1	8	4	1	1	2	0	37 (14.9)
몽골	9	4	0	2	5	0	0	0	20 (8.0)
미국	3	1	0	1	2	0	0	4	11 (4.4)
카자흐스탄	3	4	0	1	1	0	2	0	11 (4.4)
태국	9	0	0	1	0	0	0	0	10 (4.0)
우즈베키스탄	1	4	2	1	0	0	1	0	9 (3.6)
일본	8	0	0	1	0	0	0	0	9 (3.6)
인도네시아	5	0	0	3	0	0	0	0	8 (3.2)
UAE	0	4	0	3	0	0	0	0	7 (2.8)
카타르	2	1	0	2	0	1	0	0	6 (2.4)
캄보디아	3	0	1	0	1	0	0	0	5 (2.0)
러시아	0	1	0	2	1	0	0	0	4 (1.6)
싱가포르	0	1	2	0	1	0	0	0	4 (1.6)
말레이시아	1	0	0	1	1	0	0	0	3 (1.2)
대만	1	1	0	0	0	0	0	0	2 (0.8)
사우디아라비아	1	1	0	0	0	0	0	0	2 (0.8)
캐나다	0	0	0	0	0	0	0	2	2 (0.8)
페루	0	2	0	0	0	0	0	0	2 (0.8)
필리핀	2	0	0	0	0	0	0	0	2 (0.8)
호주	0	0	0	0	2	0	0	0	2 (0.8)
라오스	0	0	0	0	1	0	0	0	1 (0.4)
말라위	0	0	0	0	0	1	0	0	1 (0.4)
미얀마	1	0	0	0	0	0	0	0	1 (0.4)
방글라데시	0	0	0	0	1	0	0	0	1 (0.4)
벨라루스	0	0	0	0	1	0	0	0	1 (0.4)
스리랑카	1	0	0	0	0	0	0	0	1 (0.4)
스웨덴	1	0	0	0	0	0	0	0	1 (0.4)
아르메니아	1	0	0	0	0	0	0	0	1 (0.4)
아제르바이잔	0	0	0	0	0	0	1	0	1 (0.4)
칠레	0	1	0	0	0	0	0	0	1 (0.4)
쿠웨이트	0	0	0	1	0	0	0	0	1 (0.4)
프랑스	0	1	0	0	0	0	0	0	1 (0.4)
헝가리	0	0	0	1	0	0	0	0	1 (0.4)
합계	119	30	28	28	21	9	7	7	24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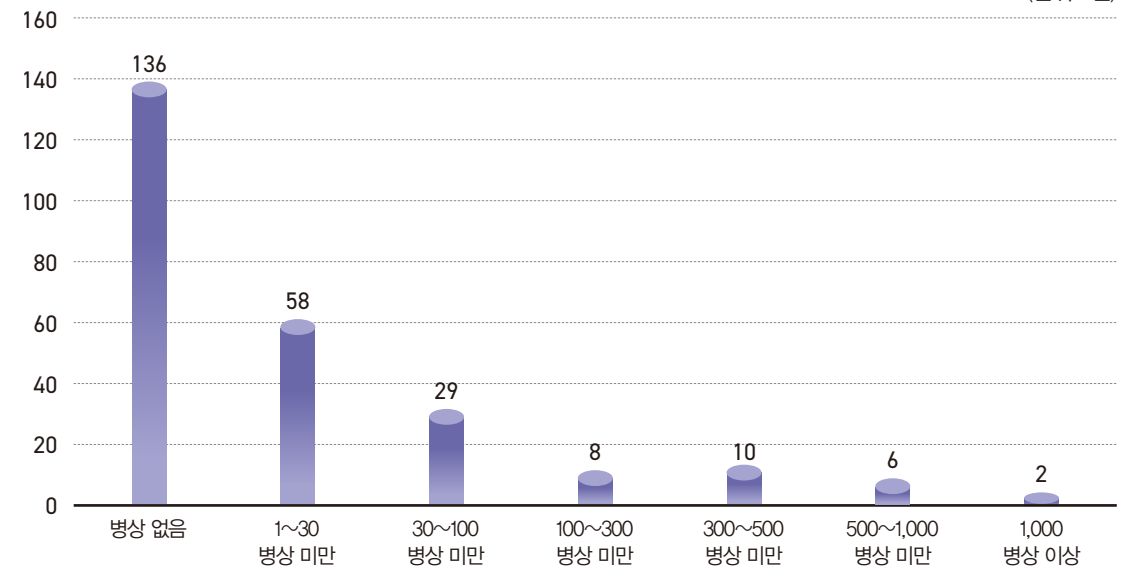
06 |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 대상, 의료 해외진출 현지 프로젝트의 병상규모(병상수)를 살펴보면, 병상 없음이 136건(5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1~30병상 미만 58건(23.3%), 30~100병상 미만 29건(11.6%), 300~500병상 미만 10건(4.0%), 100~300병상 미만 8건(3.2%), 500~1,000병상 미만 6건(2.4%), 1,000병상 이상 2건(0.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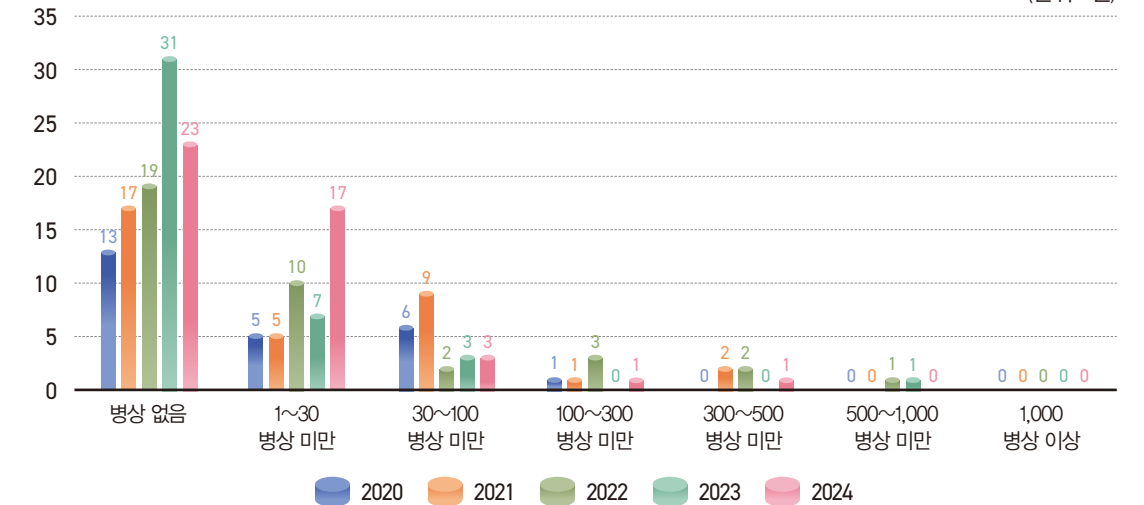
[그림 11]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그림 12]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 건)



〈표 11〉 병상규모 연도별 신고 건수(2016~2024)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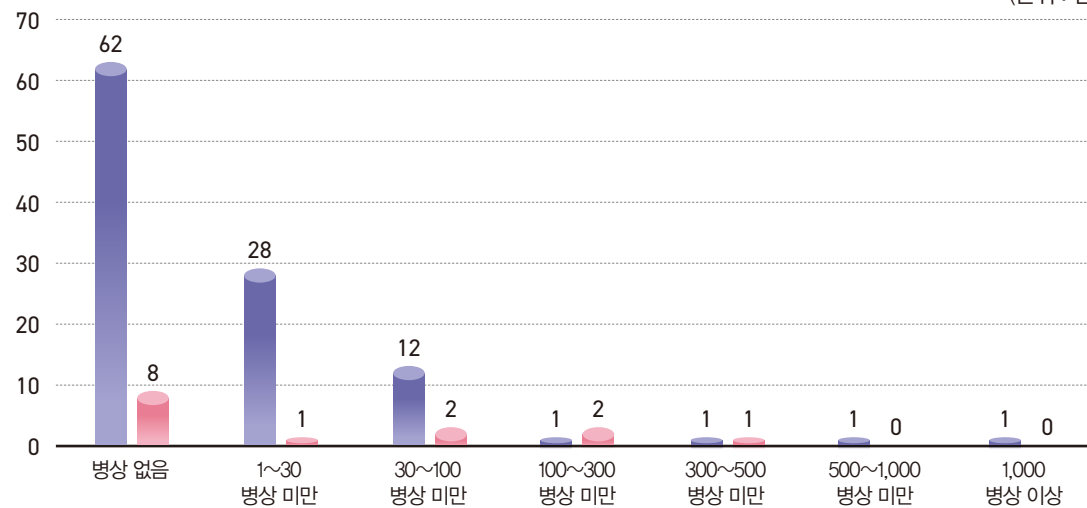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병상 없음	3	4	11	15	13	17	19	31	23	136 (54.6)
1~30병상 미만	0	5	4	5	5	5	10	7	17	58 (23.3)
30~100병상 미만	0	1	3	2	6	9	2	3	3	29 (11.6)
100~300병상 미만	2	0	0	0	1	1	3	0	1	8 (3.2)
300~500병상 미만	3	1	1	0	0	2	2	0	1	10 (4.0)
500~1,000병상 미만	2	1	1	0	0	0	1	1	0	6 (2.4)
1,000병상 이상	0	2	0	0	0	0	0	0	0	2 (0.8)

-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수탁운영 또한 병상 없음이 각각 62건(58.5%), 8건(5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래진료가 이루어지는 피부·성형, 치과와 같은 진료과목이 주로 진출하기 때문임

〈그림 13〉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표 12〉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단위: 건, 병상수)

구분	병상 없음	1~30 병상 미만	30~100 병상 미만	100~300 병상 미만	300~500 병상 미만	500~1,000 병상 미만	1,000 병상 이상	합계
의료기관 개설·운영	62	28	12	1	1	1	1	106
수탁운영	8	1	2	2	1	0	0	14
합계	70	29	14	3	2	1	1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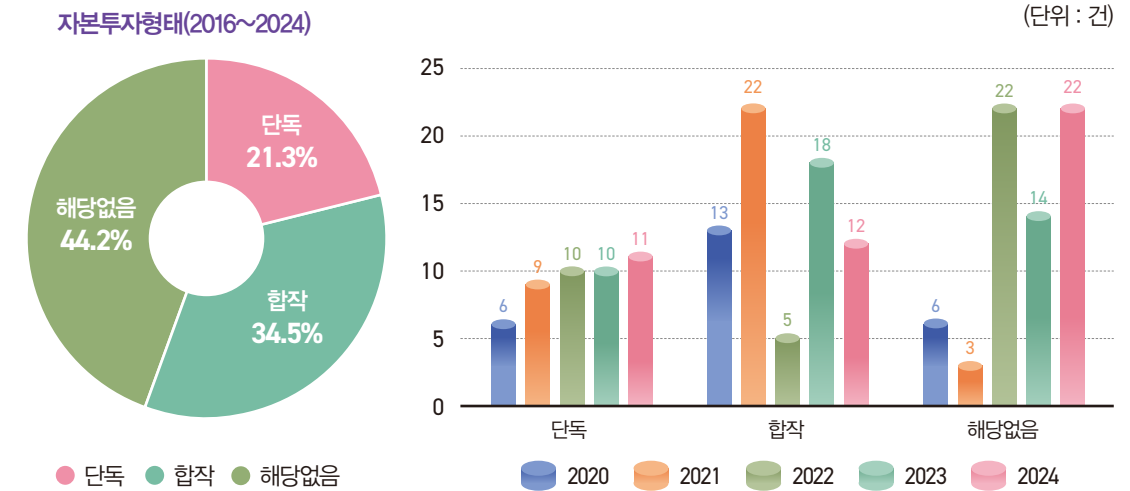
07 | 자본투자 형태별 신고 현황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110건(44.2%)은 자본투자 없이 진출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139건(55.8%)의 경우 단독투자 53건(21.3%), 합작투자 86건(34.5%)으로 나타남

〈그림 14〉 의료 해외진출 자본투자 형태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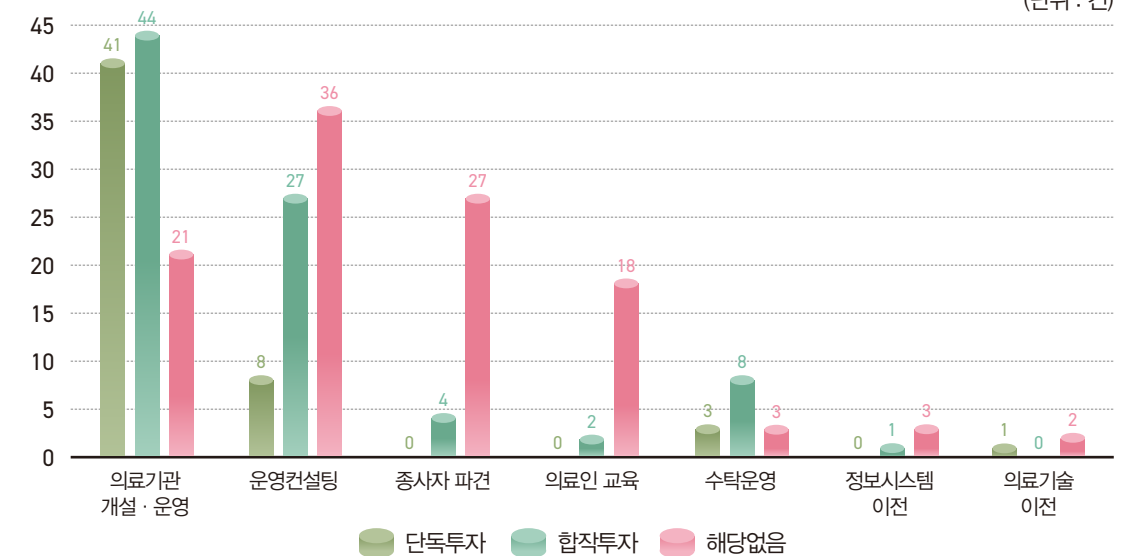
(단위 : 건)



- 자본투자가 동반된 139건 중 '의료기관 개설·운영' 85건(61.2%), '운영컨설팅' 35건(25.2%), '종사자 파견' 4건(2.9%), '수탁운영' 11건(7.9%), '정보시스템 이전' 및 '의료기술 이전'이 각 1건(0.7%)으로 나타남

〈그림 15〉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별 자본투자 현황

(단위 : 건)



〈표 13〉 의료 해외진출 진출유형별 자본투자 현황(2016~2024)

(단위 : 건, %)

구분	단독투자	합작투자	해당없음 (투자없음)	합계
의료기관 개설·운영	41	44	21	106 (42.6)
운영컨설팅	8	27	36	71 (28.5)
종사자 파견	0	4	27	31 (12.4)
의료인 교육	0	2	18	20 (8.0)
수탁 운영	3	8	3	14 (5.6)
정보시스템 이전	0	1	3	4 (1.6)
의료기술 이전	1	0	2	3 (1.2)
합계	53	86	110	249 (100)

〈표 14〉 특수목적법인 연도별 설립 현황(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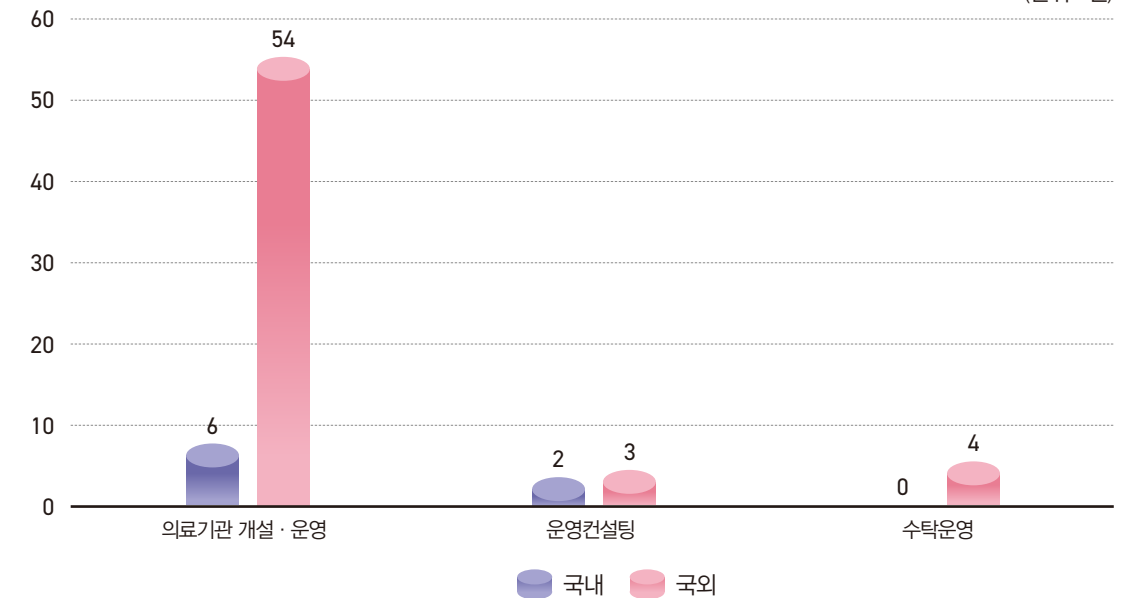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국내	0	0	0	0	0	3	0	1	4	8 (3.2)
해외	2	4	7	2	6	7	3	18	12	61 (24.5)
해당없음	8	10	13	20	19	24	34	23	29	180 (72.3)
합계	10	14	20	22	25	34	37	42	45	249 (100)

- 특수목적법인 설립 건을 진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운영 60건(87.0%), 운영컨설팅이 5건(7.2%), 수탁운영 4건(5.8%)으로 나타남

[그림 17] 특수목적법인 진출유형별 설립 현황

(단위 : 건)



〈표 15〉 특수목적법인 진출유형별 설립 현황

(단위 : 건)

구분	의료기관 개설·운영	운영컨설팅	수탁 운영	합계
국내	6	2	0	8
해외	54	3	4	61
합계	60	5	4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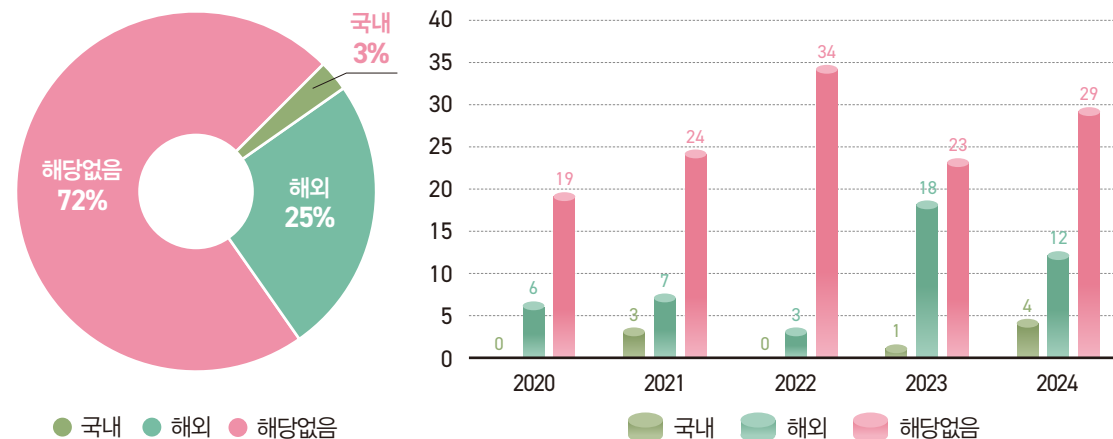
08 | 특수목적법인 설립여부

-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한 건은 69건(27.7%), 해당없음은 180건(72.3%)으로 나타남
 - 특수목적법인 설립 69건 중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건은 8건, 해외 특수목적법인설립 건은 61건으로 나타남

[그림 16] 의료 해외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신고 현황

특수목적법인 설립 현황(2016~2024)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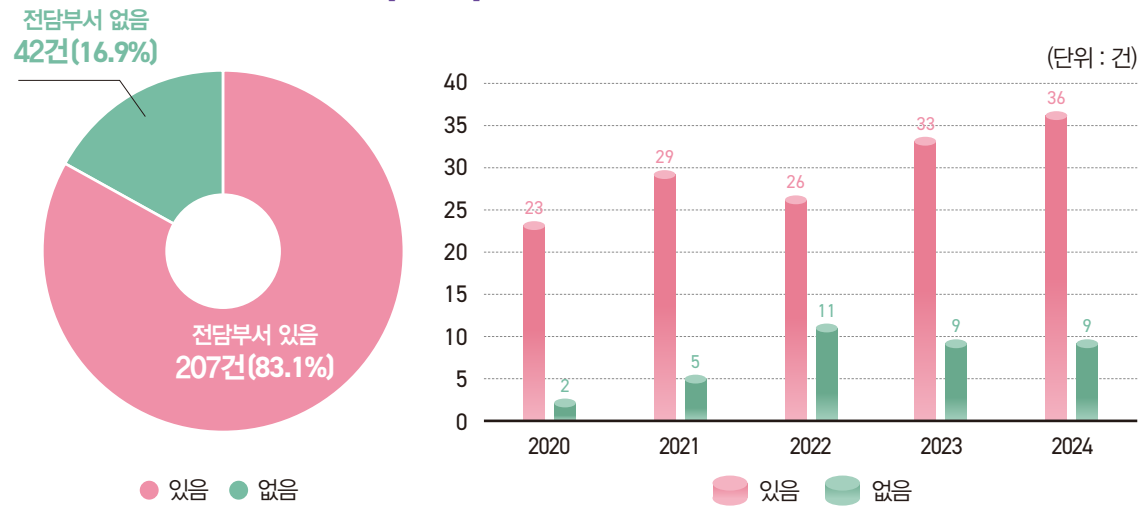


09 |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207건(83.1%),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42건(16.9%)으로 나타남
-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전담부서 인원은 평균 5.9명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45명으로 조사됨

[그림 18]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표 16〉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2016~2024)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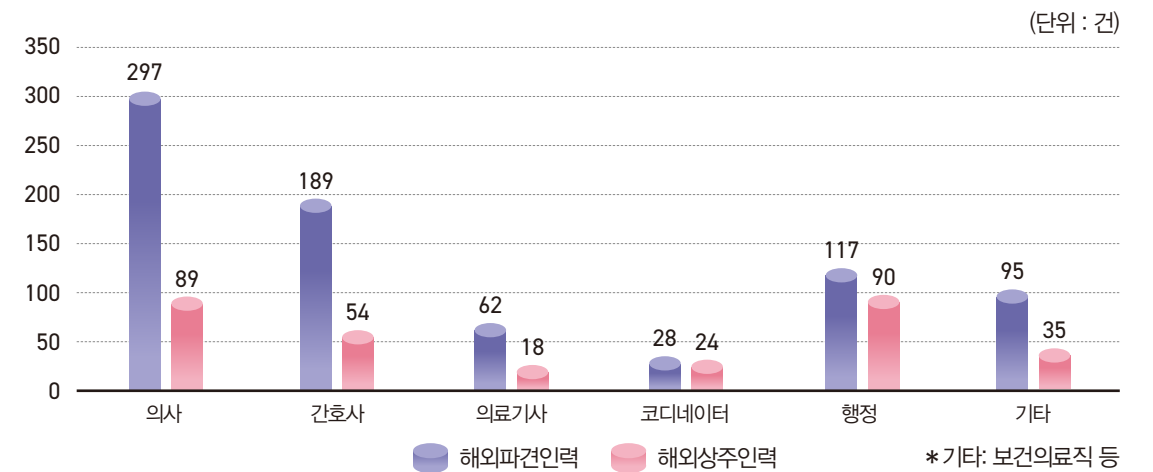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있음	10	12	16	22	23	29	26	33	36	207 (83.1)
없음	0	2	4	0	2	5	11	9	9	42 (16.9)
합계	10	14	20	22	25	34	37	42	45	249 (100)

10 | 의료 해외진출 연계 인력 고용 현황



-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 대상, 해외진출 국내인력은 총 1,098명으로 파견인력 788명(71.8%), 상주인력 310명(28.2%)으로 나타남
- 직군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386명(35.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간호사 243명(22.1%), 행정인력 207명(18.9%), 의료기사 80명(7.3%), 코디네이터 52명(4.7%), 기타 130명(11.8%)으로 나타남
- *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로 임시 파견간인력은 '해외파견인력', 정해진 기한 없이 해외에 머무르며 상주하는 인력은 '해외상주인력'으로 구분

[그림 19] 의료 해외진출 연계 국내인력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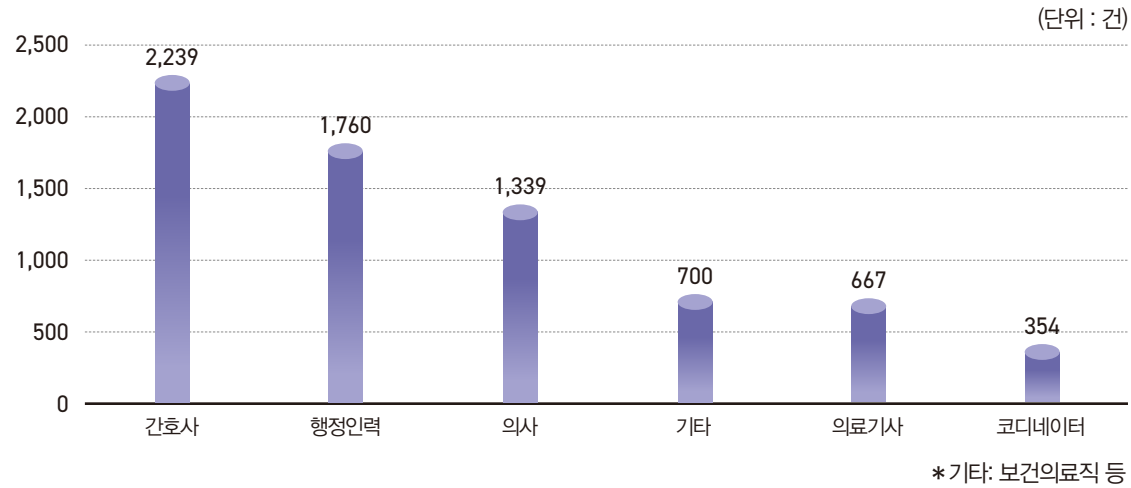
〈표 17〉 의료 해외진출 연계 국내 파견인력/상주인력 연도별 고용 현황(2016~2024)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해외파견인력	271	35	135	101	54	55	34	82	21	788 (71.8)
의사	81	13	57	34	30	28	10	36	8	297 (27.0)
간호사	96	7	35	16	14	3	9	9	0	189 (17.2)
행정	40	2	14	17	6	6	6	17	9	117 (10.7)
의료기사	8	1	19	11	2	5	0	14	2	62 (5.6)
코디네이터	2	7	3	7	0	0	1	6	2	28 (2.6)
기타	44	5	7	16	2	13	8	0	0	95 (8.7)
해외상주인력	75	37	30	26	35	35	16	45	11	310 (28.2)
의사	3	18	10	9	13	17	5	12	2	89 (8.1)
간호사	16	11	5	3	9	2	2	6	0	54 (4.9)
행정	38	3	8	4	8	10	5	9	5	90 (8.2)
의료기사	0	0	1	6	1	0	0	6	4	18 (1.6)
코디네이터	4	1	2	1	1	6	2	7	0	24 (2.2)
기타	14	4	4	3	3	0	2	5	0	3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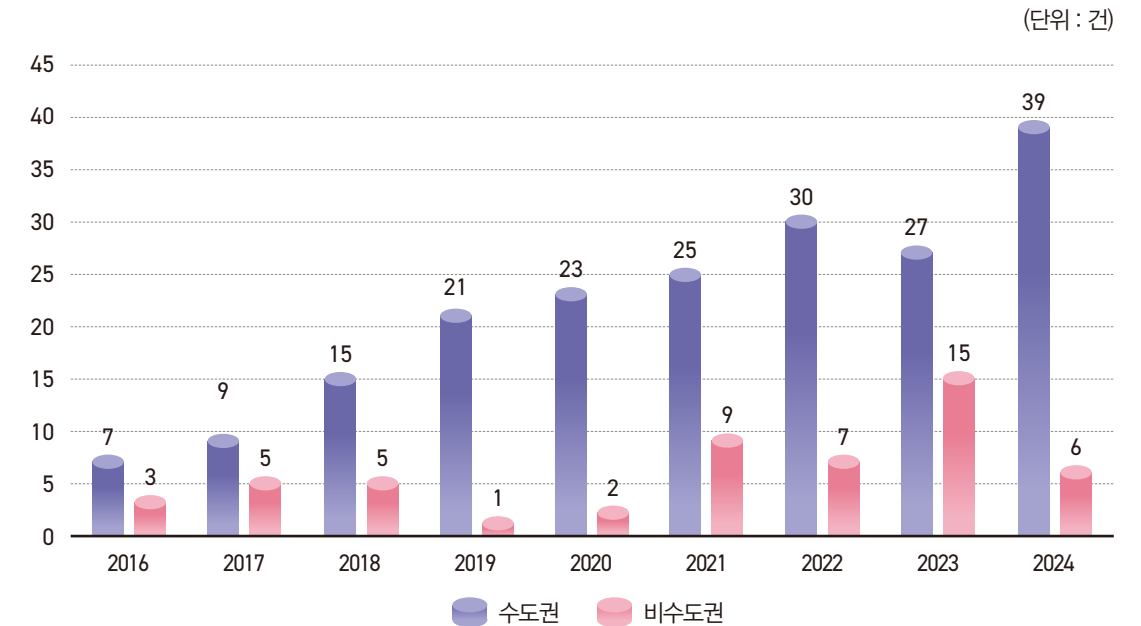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249건의 해외 현지인력 고용 현황은 총 7,059명이며, 간호사가 2,239명(31.7%)으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행정인력 1,760명(24.9%) 의사 1,339명(19.0%), 기타 700명(9.9%), 의료기사 667명(9.4%), 코디네이터 354명(5.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0] 의료 해외진출 연계 해외 현지인력 고용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는 총 196건(78.7%)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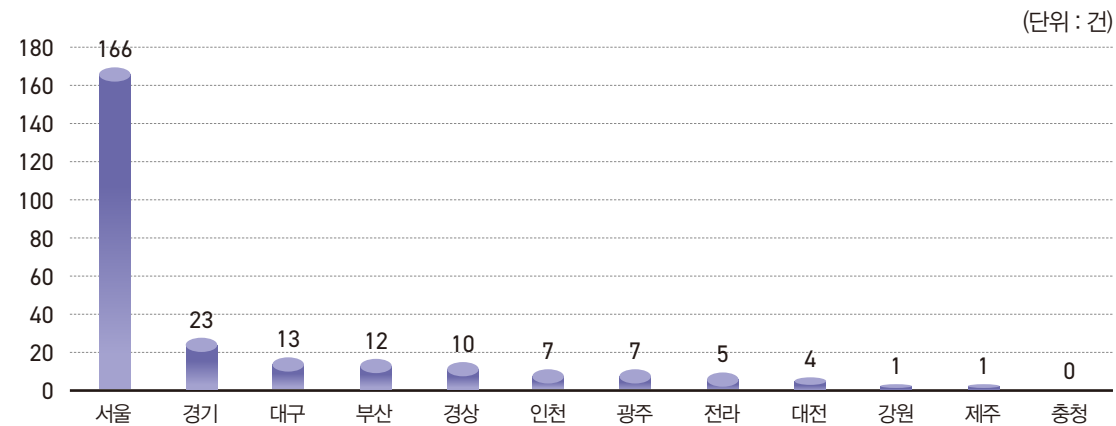
[그림 22] 의료 해외진출 수도권/비수도권 연도별 신고 현황



11 지역별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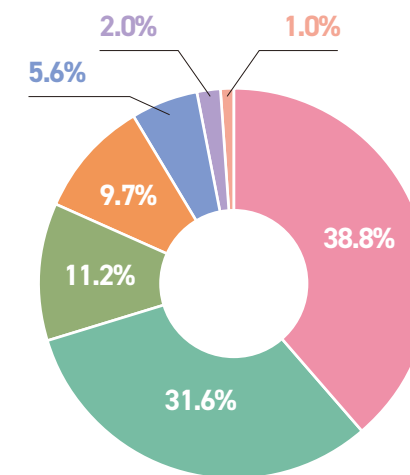
- 신고된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 진출한 건수가 166건(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경기 23건(9.2%), 대구 13건(5.2%), 부산 12건(4.8%), 경상 10건(4.0%), 인천·광주 각 7건(2.8%), 전라 5건(2.0%), 대전 4건(1.6%), 강원·제주 각 1건(0.4%)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의료 해외진출 지역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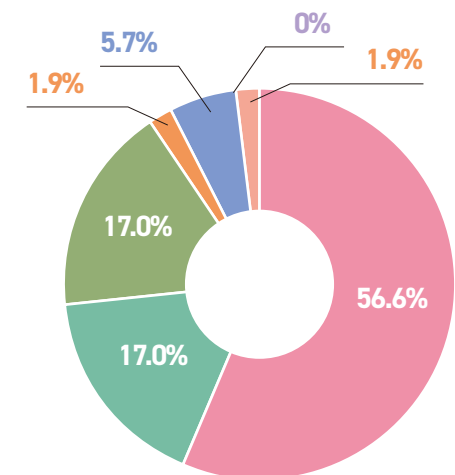


- 진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의료기관 개설·운영(38.8%, 56.6%), 운영컨설팅(31.6%, 17.0%), 종사자 파견(11.2%, 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유형



[그림 24] 비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유형



- 의료기관 개설·운영
- 운영컨설팅
- 종사자 파견
- 의료인 교육
- 수탁 운영
- 정보시스템 이전
- 의료기술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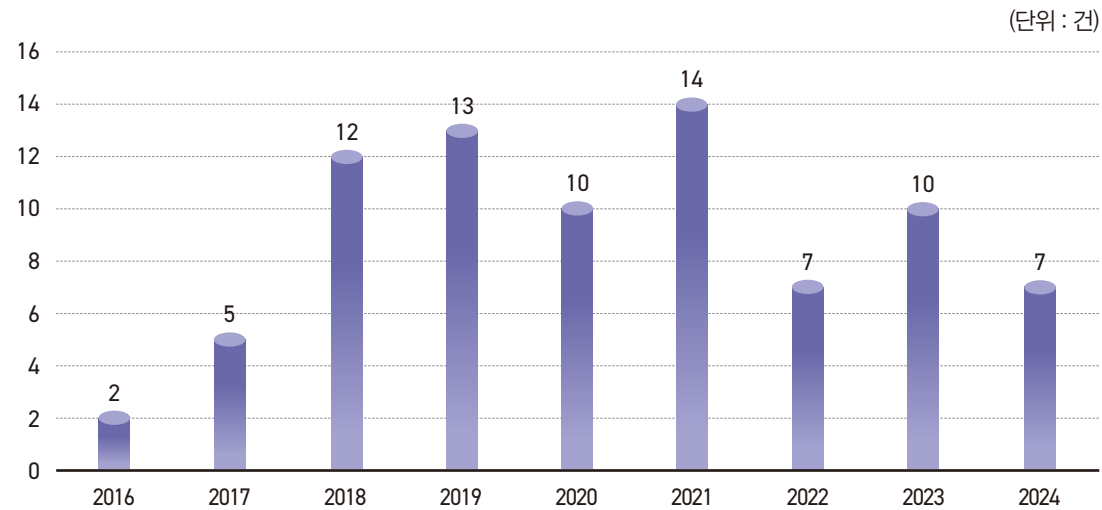
12 | 의료 해외진출 주요 국가별 현황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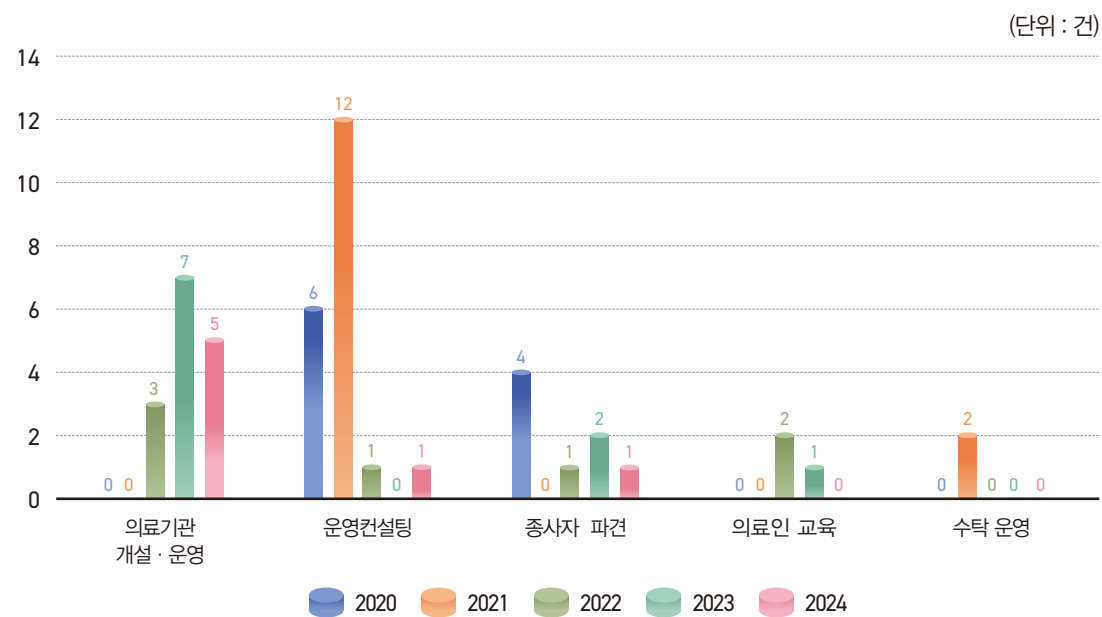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중국 진출은 80건(32.1%)으로 가장 많이 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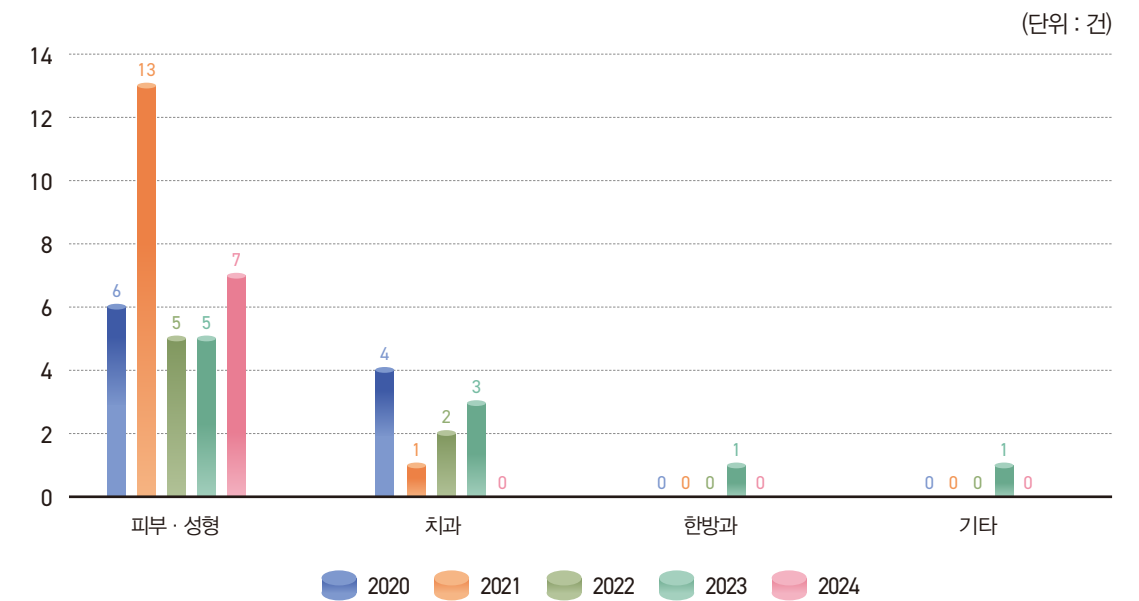
[그림 25] 중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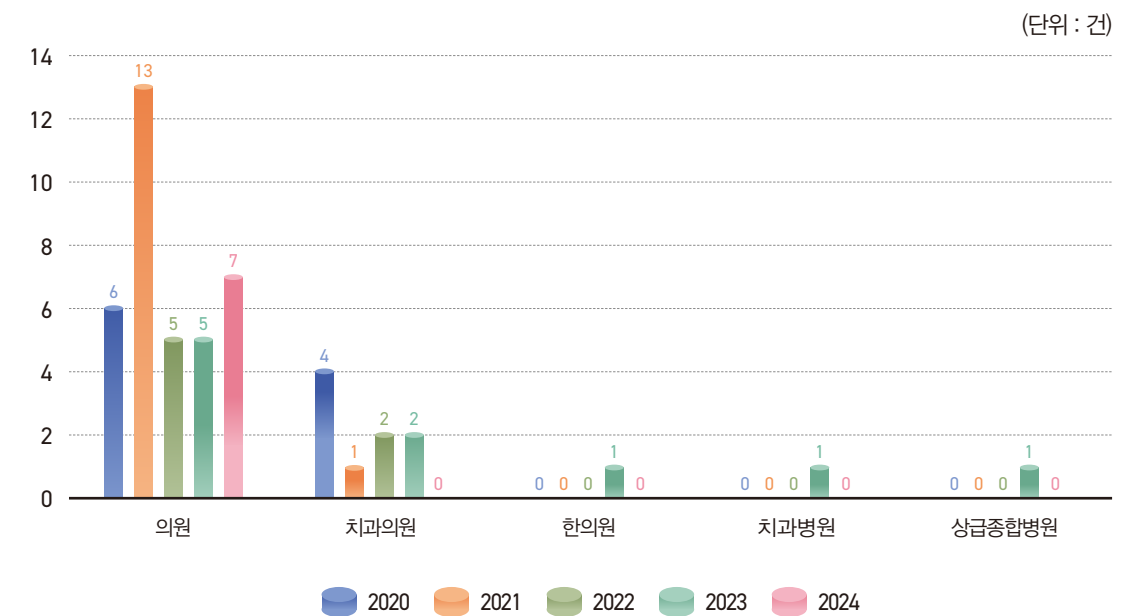
[그림 26] 중국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그림 27] 중국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그림 28] 중국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표 18〉 중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중국 진출 신고	2	5	12	13	10	14	7	10	7	80 (100)
진출 유형별										
의료기관 개설·운영	1	2	2	2	0	0	3	7	5	22 (27.5)
운영컨설팅	1	3	1	4	6	12	1	0	1	29 (36.3)
종사자 파견	0	0	6	4	4	0	1	2	1	18 (22.5)
의료인 교육	0	0	1	1	0	0	2	1	0	5 (6.3)
수탁운영	0	0	1	2	0	2	0	0	0	5 (6.3)
의료기술 이전	0	0	1	0	0	0	0	0	0	1 (1.3)
진출 진료과별										
피부·성형	2	1	2	6	6	13	5	5	7	47 (58.8)
치과	0	2	4	5	4	1	2	3	0	21 (26.3)
종합	0	1	2	0	0	0	0	0	0	3 (3.8)
재활의학과	0	0	1	1	0	0	0	0	0	2 (2.5)
한방과	0	0	1	0	0	0	0	1	0	2 (2.5)
건강검진	0	1	0	0	0	0	0	0	0	1 (1.3)
기타	0	0	0	0	0	0	0	1	0	1 (1.3)
비뇨기과	0	0	1	0	0	0	0	0	0	1 (1.3)
일반외과	0	0	1	0	0	0	0	0	0	1 (1.3)
정형외과	0	0	0	1	0	0	0	0	0	1 (1.3)
의료기관 종별										
의원	1	0	4	6	6	13	5	5	7	47 (58.8)
치과의원	0	0	4	2	4	1	2	2	0	15 (18.8)
한의원	0	0	0	0	0	0	0	1	0	1 (1.3)
병원	1	1	1	1	0	0	0	0	0	4 (5.0)
치과병원	0	2	0	3	0	0	0	1	0	6 (7.5)
한방병원	0	0	1	0	0	0	0	0	0	1 (1.3)
종합병원	0	0	2	1	0	0	0	0	0	3 (3.8)
상급종합병원	0	2	0	0	0	0	0	1	0	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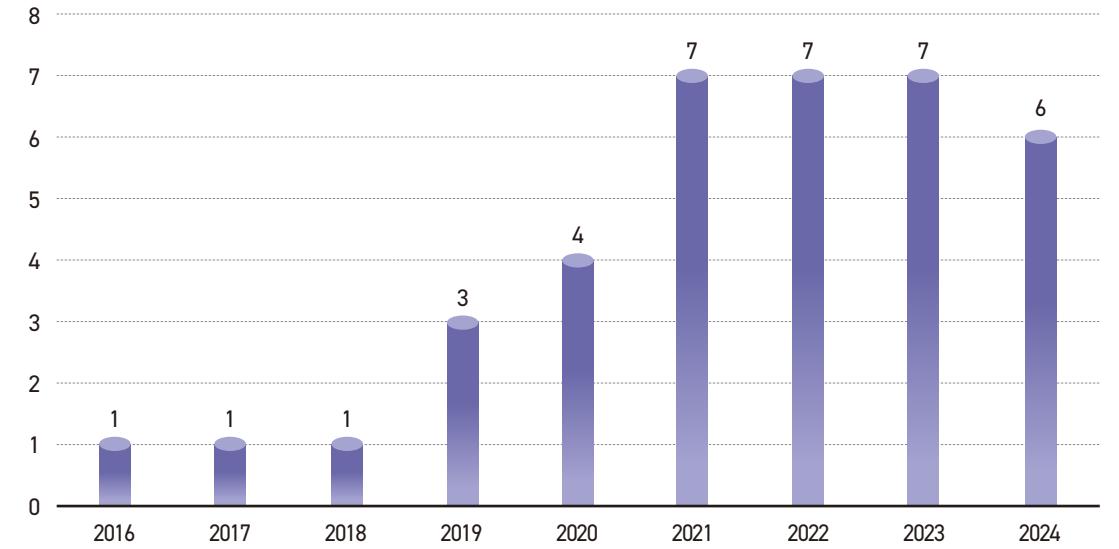
2. 베트남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베트남 진출은 37건(14.9%)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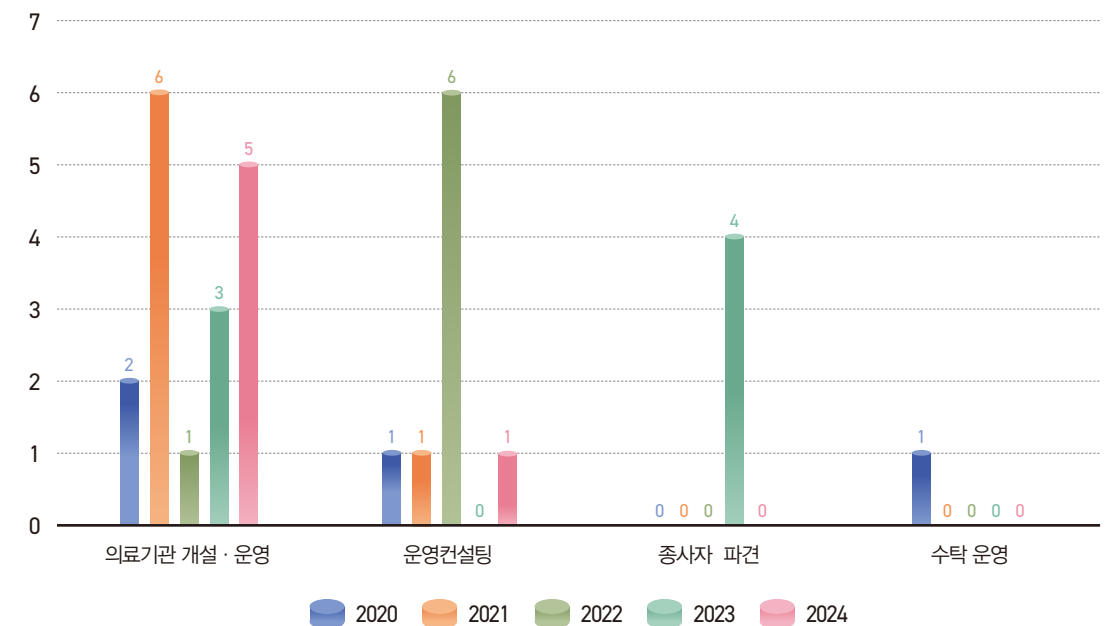
[그림 29] 베트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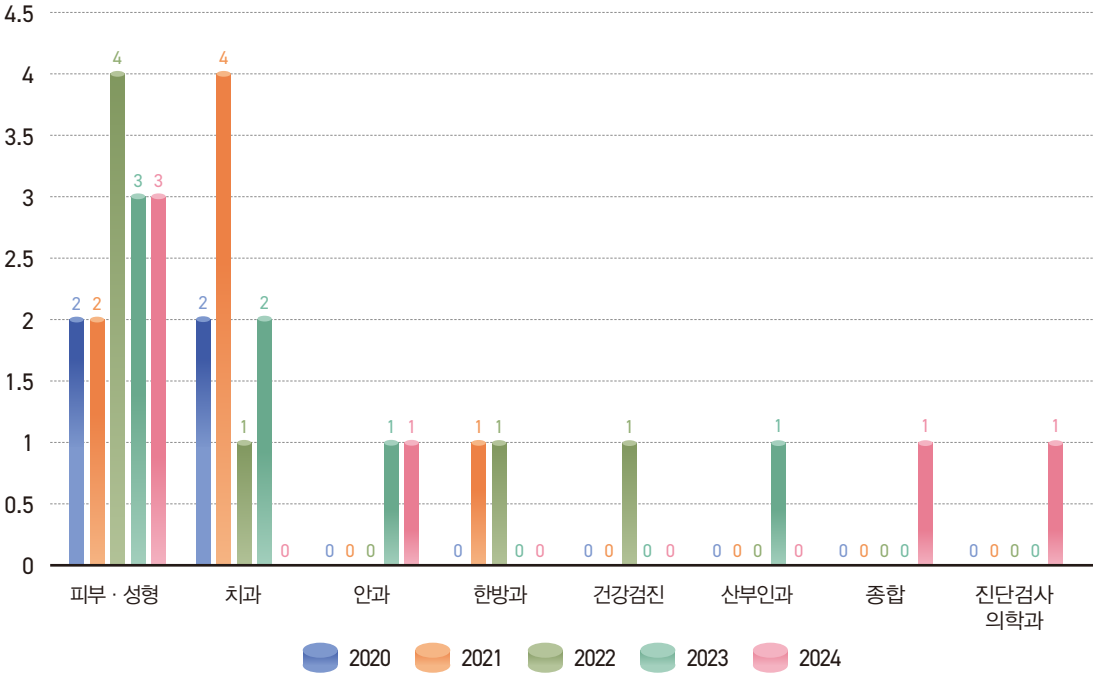
[그림 30] 베트남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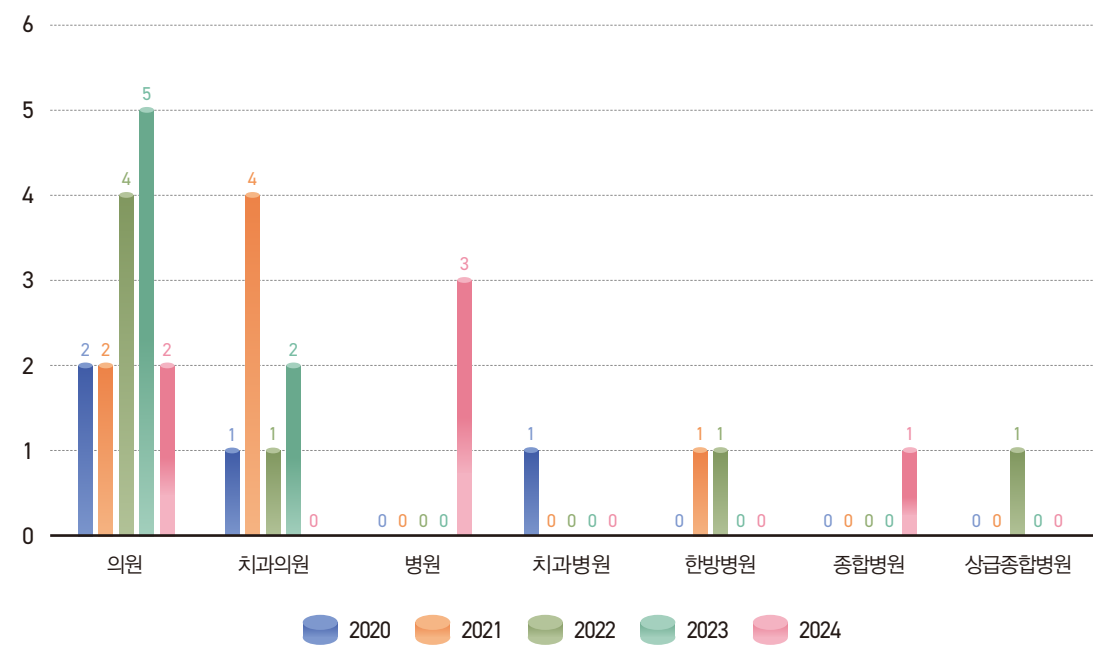
[그림 31] 베트남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 건)



[그림 32] 베트남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 건)



〈표 19〉 베트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베트남 진출 신고	1	1	1	3	4	7	7	7	6	37 (100)

진출 유형별

의료기관 개설·운영	0	0	0	1	2	6	1	3	5	18 (48.6)
운영컨설팅	1	1	1	1	1	1	6	0	1	13 (35.1)
종사자 파견	0	0	0	1	0	0	0	4	0	5 (13.5)
수탁운영	0	0	0	0	1	0	0	0	0	1 (2.7)

진출 진료과별

피부·성형	1	1	1	2	2	2	4	3	3	19 (51.4)
치과	0	0	0	0	2	4	1	2	0	9 (24.3)
안과	0	0	0	1	0	0	0	1	1	3 (8.1)
한방과	0	0	0	0	0	1	1	0	0	2 (5.4)
건강검진	0	0	0	0	0	0	1	0	0	1 (2.7)
산부인과	0	0	0	0	0	0	0	1	0	1 (2.7)
종합	0	0	0	0	0	0	0	0	1	1 (2.7)
진단검사의학과	0	0	0	0	0	0	0	0	1	1 (2.7)

의료기관 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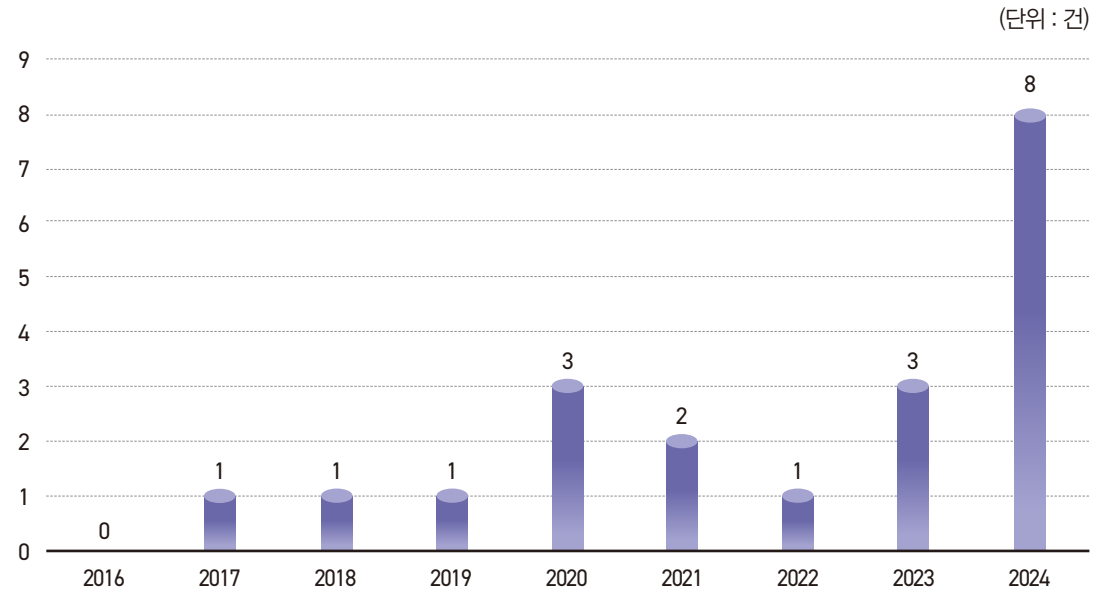
의원	1	1	1	2	2	2	4	5	2	20 (54.1)
치과의원	0	0	0	0	1	4	1	2	0	8 (21.6)
병원	0	0	0	1	0	0	0	0	3	4 (10.8)
치과병원	0	0	0	0	1	0	0	0	0	1 (2.7)
한방병원	0	0	0	0	0	1	1	0	0	2 (5.4)
종합병원	0	0	0	0	0	0	0	0	1	1 (2.7)
상급종합병원	0	0	0	0	0	0	1	0	0	1 (2.7)

3.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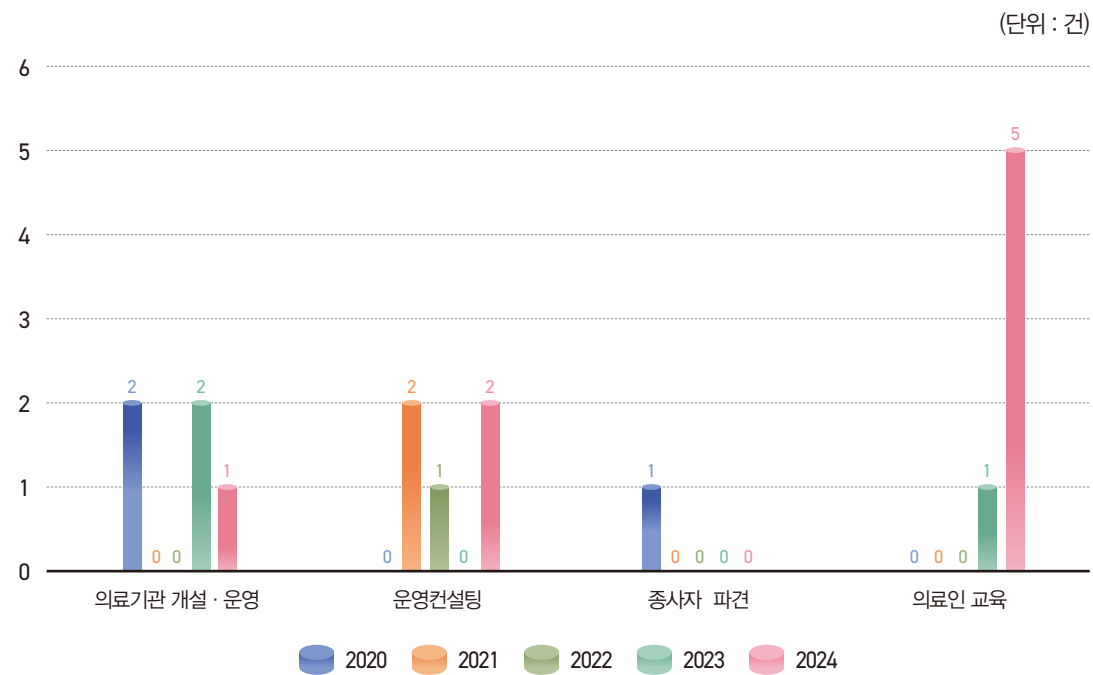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몽골 진출은 20건(8.0%)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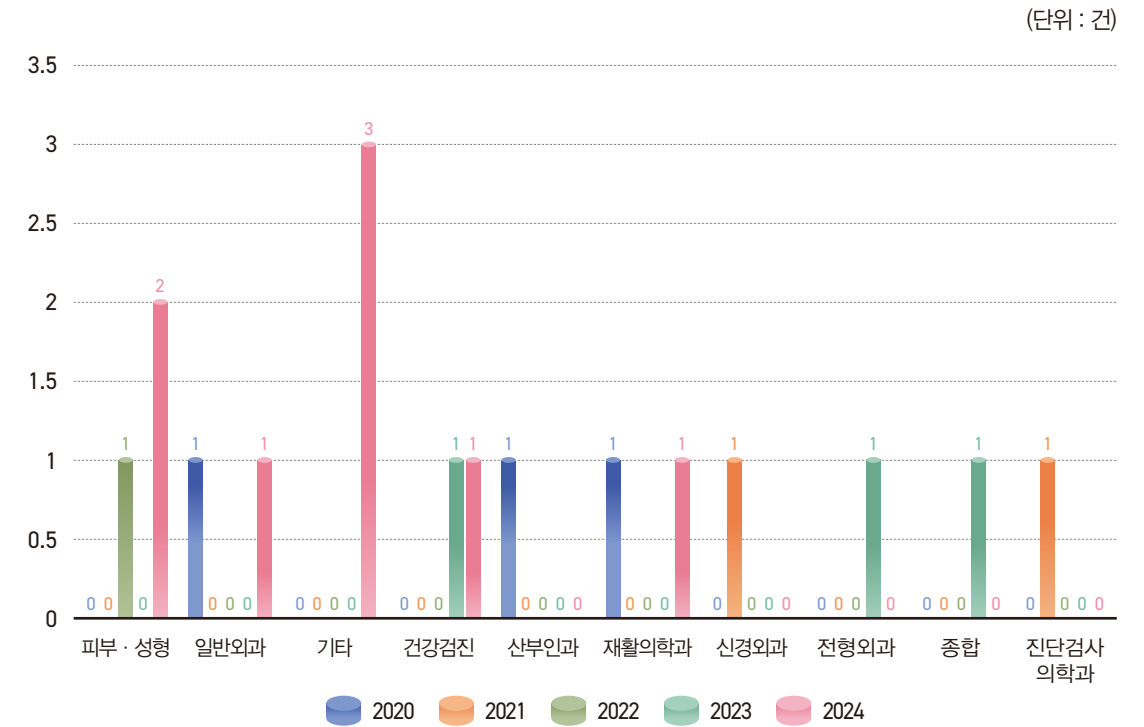
[그림 33] 몽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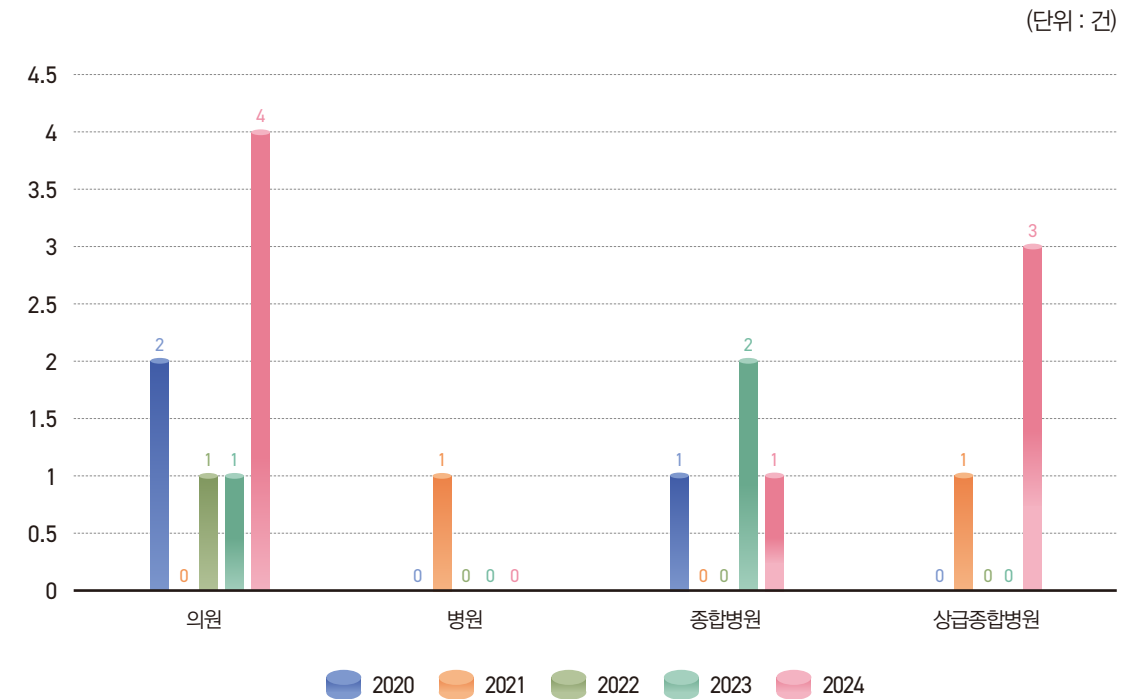
[그림 34] 몽골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그림 35] 몽골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그림 36] 몽골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표 20〉 몽골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몽골 진출 신고	0	1	1	1	3	2	1	3	8	20 (100)
진출 유형별										
의료기관 개설·운영	0	1	0	0	2	0	0	2	1	6 (30.0)
운영컨설팅	0	0	0	0	0	2	1	0	2	5 (25.0)
종사자 파견	0	0	1	1	1	0	0	0	0	3 (15.0)
의료인 교육	0	0	0	0	0	0	0	1	5	6 (30.0)
진출 진료과별										
피부·성형	0	0	0	0	0	0	1	0	2	3 (15.0)
일반외과	0	0	0	1	1	0	0	0	1	3 (15.0)
기타	0	0	0	0	0	0	0	0	3	3 (15.0)
건강검진	0	0	0	0	0	0	0	1	1	2 (10.0)
산부인과	0	1	0	0	1	0	0	0	0	2 (10.0)
재활의학과	0	0	0	0	1	0	0	0	1	2 (10.0)
신경외과	0	0	0	0	0	1	0	0	0	1 (5.0)
정형외과	0	0	0	0	0	0	0	1	0	1 (5.0)
종합	0	0	0	0	0	0	0	1	0	1 (5.0)
진단검사의학과	0	0	0	0	0	1	0	0	0	1 (5.0)
흉부외과	0	0	1	0	0	0	0	0	0	1 (5.0)
의료기관 종별										
의원	0	0	0	1	2	0	1	1	4	9 (45.0)
병원	0	1	0	0	0	1	0	0	0	2 (10.0)
종합병원	0	0	1	0	1	0	0	2	1	5 (25.0)
상급종합병원	0	0	0	0	0	1	0	0	3	4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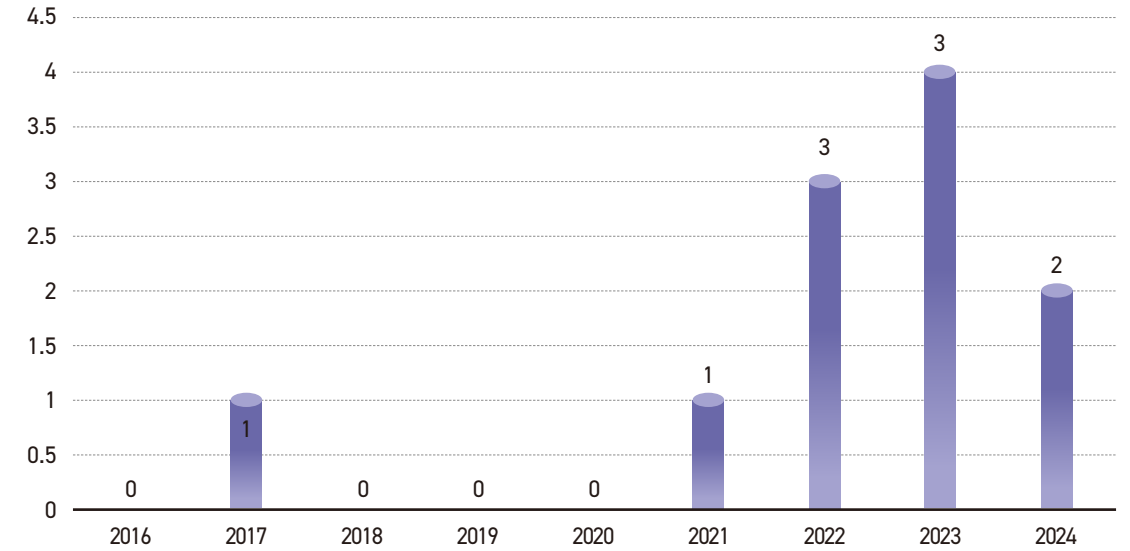
4. 미국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미국 진출은 11건(4.4%)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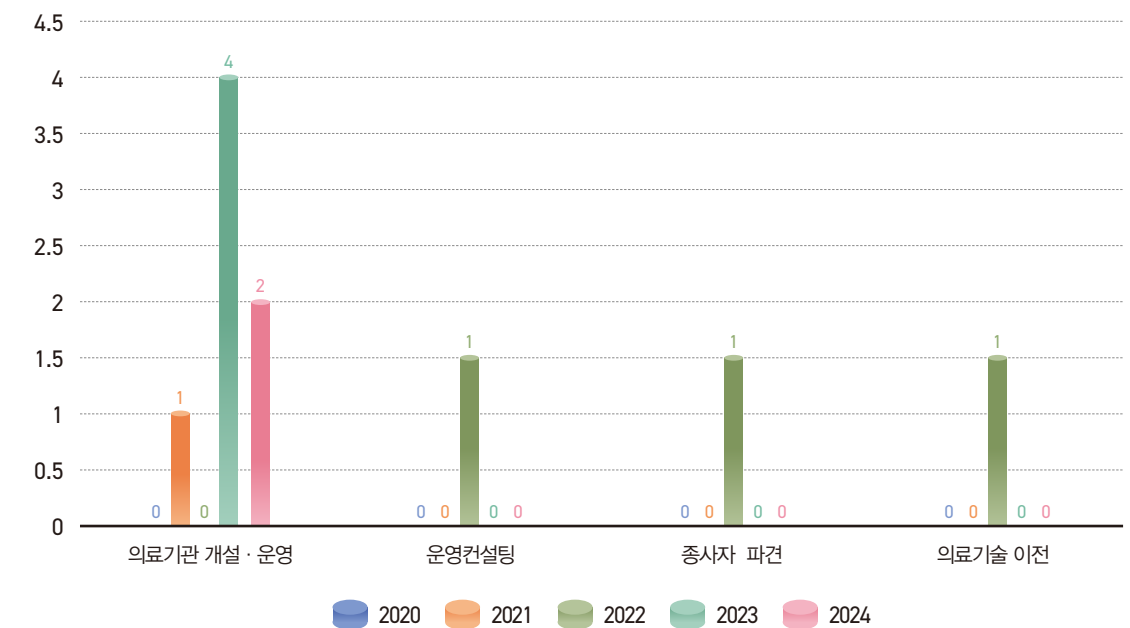
[그림 37] 미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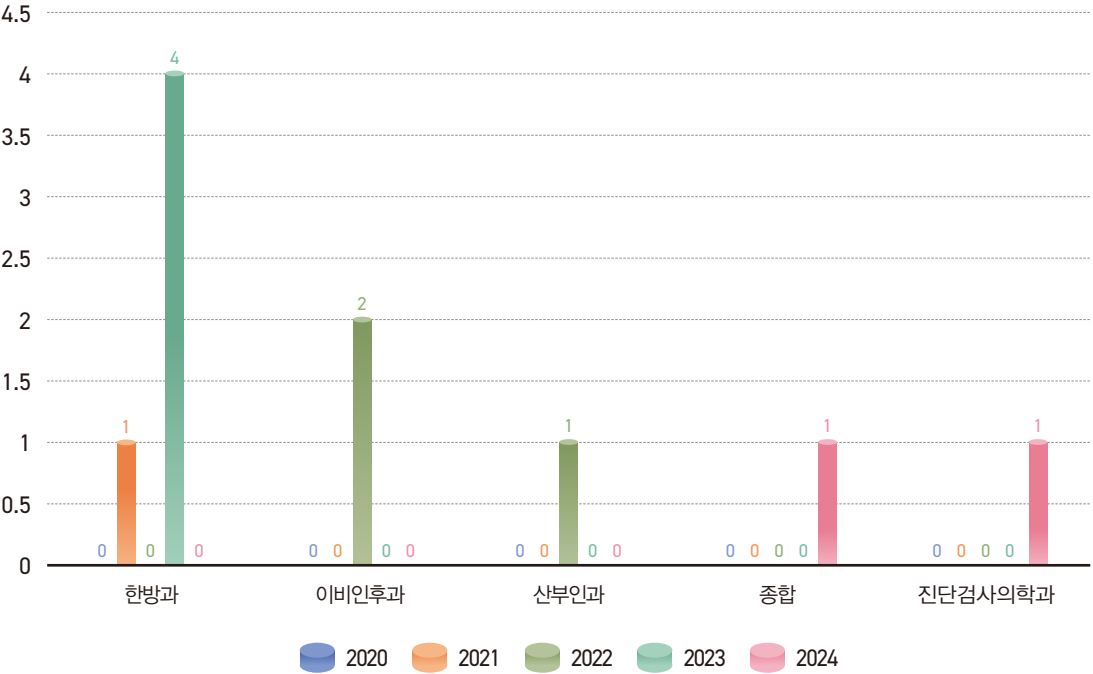
[그림 38] 미국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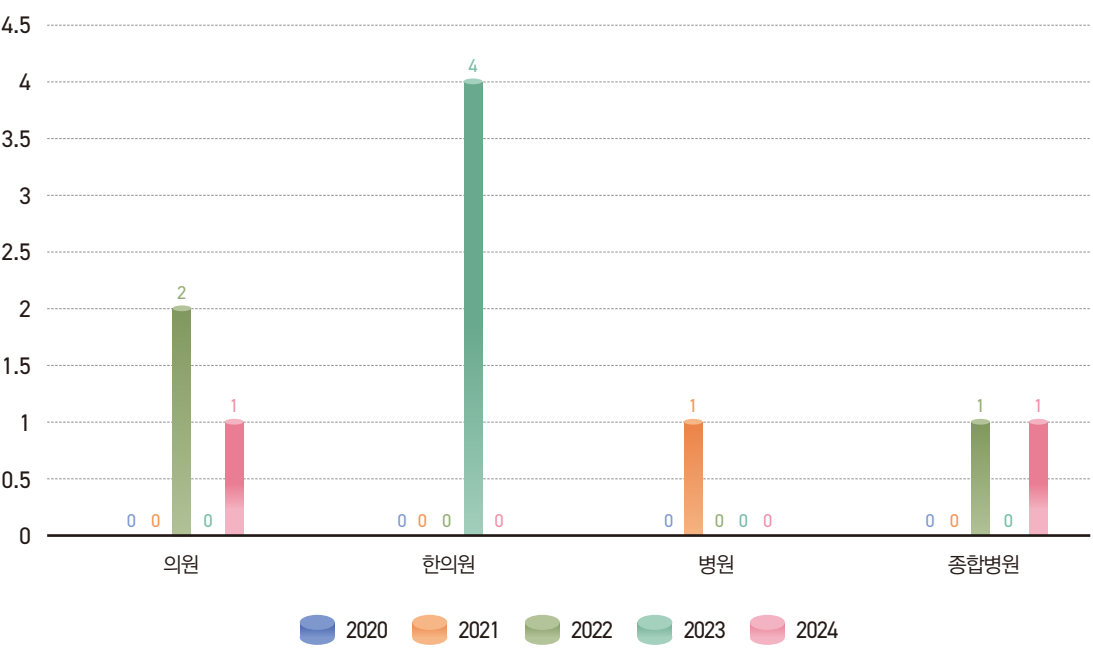
[그림 39] 미국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건)



[그림 40] 미국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단위: 건)



〈표 21〉 미국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미국 진출 신고	0	1	0	0	0	1	3	4	2	11 (100)

진출 유형별

의료기관 개설·운영	0	0	0	0	0	1	0	4	2	7 (63.6)
운영컨설팅	0	0	0	0	0	0	1	0	0	1 (9.1)
종사자 파견	0	0	0	0	0	0	1	0	0	1 (9.1)
의료기술 이전	0	0	0	0	0	0	1	0	0	1 (9.1)
정보시스템	0	1	0	0	0	0	0	0	0	1 (9.1)

진출 진료과별

한방과	0	0	0	0	0	1	0	4	0	5 (45.5)
이비인후과	0	0	0	0	0	0	2	0	0	2 (18.2)
산부인과	0	0	0	0	0	0	1	0	0	1 (9.1)
종합	0	0	0	0	0	0	0	0	1	1 (9.1)
진단검사의학과	0	0	0	0	0	0	0	0	1	1 (9.1)
기타	0	1	0	0	0	0	0	0	0	1 (9.1)

의료기관 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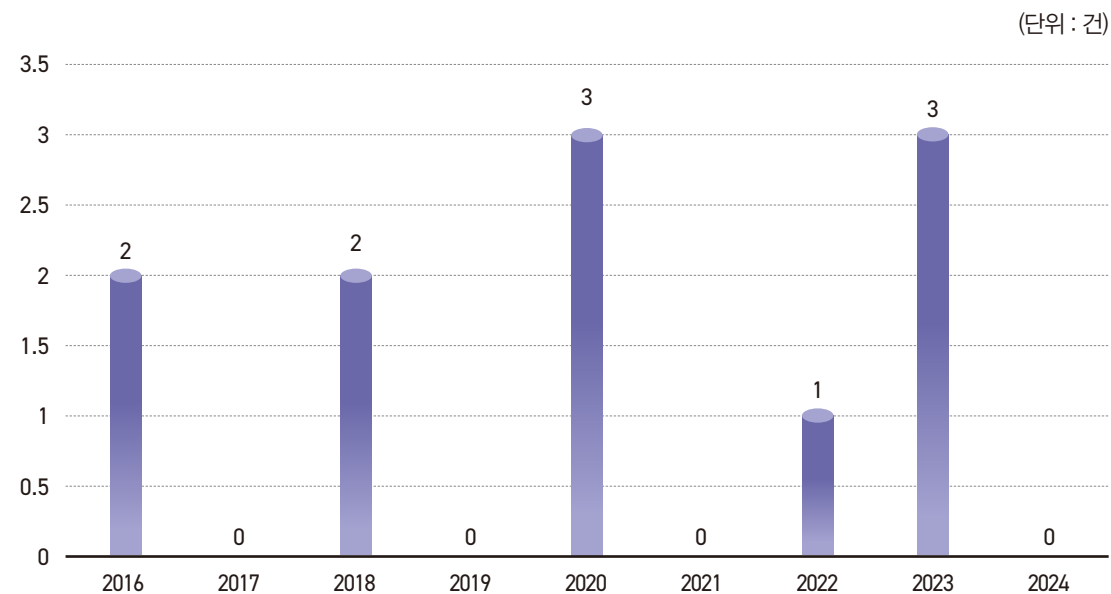
의원	0	0	0	0	0	0	2	0	1	3 (27.3)
한의원	0	0	0	0	0	0	0	4	0	4 (36.4)
병원	0	0	0	0	0	1	0	0	0	1 (9.1)
종합병원	0	0	0	0	0	0	1	0	1	2 (18.2)
상급종합병원	0	1	0	0	0	0	0	0	0	1 (9.1)

5.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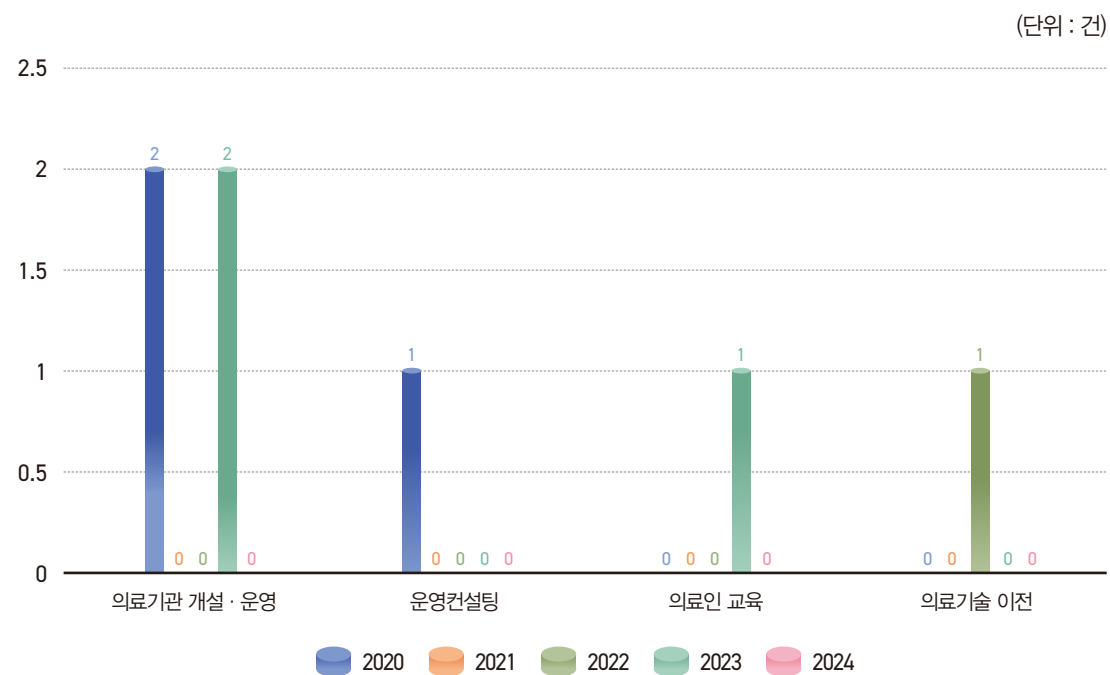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카자흐스탄 진출은 11건(4.4%)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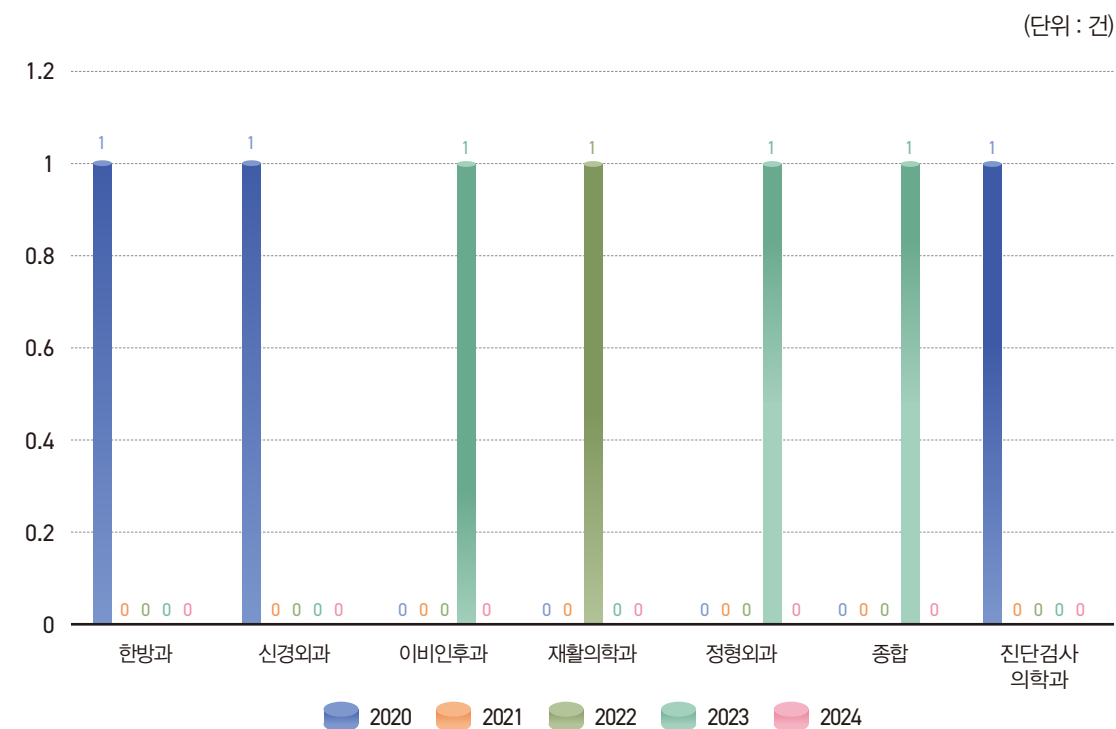
[그림 41] 카자흐스탄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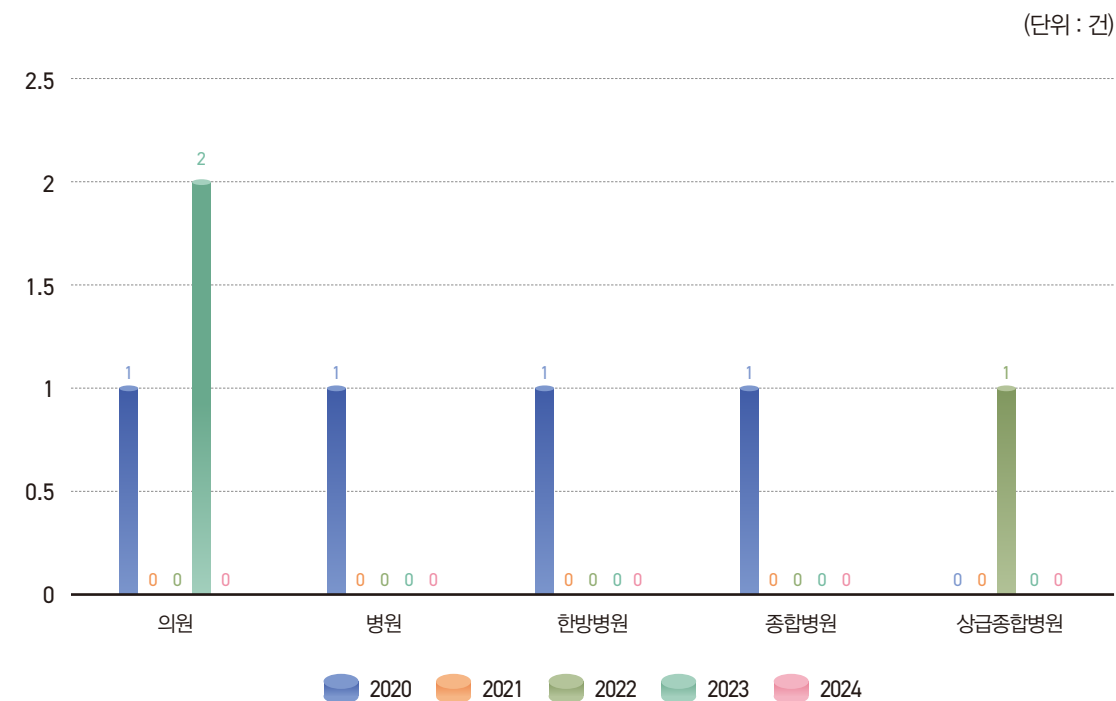
[그림 42] 카자흐스탄 진출유형 5개년 신고 현황



[그림 43] 카자흐스탄 진출 진료과목 5개년 신고 현황



[그림 44] 카자흐스탄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신고 현황



〈표 22〉 카자흐스탄 연도별 진출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카자흐스탄 진출 신고	2	0	2	0	3	0	1	3	0	11 (100)

진출 유형별

의료기관 개설·운영	0	0	1	0	2	0	0	2	0	5 (45.5)
운영컨설팅	0	0	1	0	1	0	0	0	0	2 (18.2)
종사자 파견	2	0	0	0	0	0	0	0	0	2 (18.2)
의료인 교육	0	0	0	0	0	0	0	1	0	1 (9.1)
의료기술 이전	0	0	0	0	0	0	1	0	0	1 (9.1)

진출 진료과별

일반외과	2	0	1	0	0	0	0	0	0	3 (27.3)
한방과	0	0	1	0	1	0	0	0	0	2 (18.2)
신경외과	0	0	0	0	1	0	0	0	0	1 (9.1)
이비인후과	0	0	0	0	0	0	0	1	0	1 (9.1)
재활의학과	0	0	0	0	0	0	1	0	0	1 (9.1)
정형외과	0	0	0	0	0	0	0	1	0	1 (9.1)
종합	0	0	0	0	0	0	0	1	0	1 (9.1)
진단검사의학과	0	0	0	0	1	0	0	0	0	1 (9.1)

의료기관 종별

의원	0	0	0	0	1	0	0	2	0	3 (27.3)
병원	0	0	0	0	1	0	0	0	0	1 (9.1)
한방병원	0	0	1	0	1	0	0	0	0	2 (18.2)
종합병원	0	0	0	0	0	0	0	1	0	1 (9.1)
상급종합병원	2	0	1	0	0	0	1	0	0	4 (36.4)

13 | 의료 해외진출 주요 권역별 현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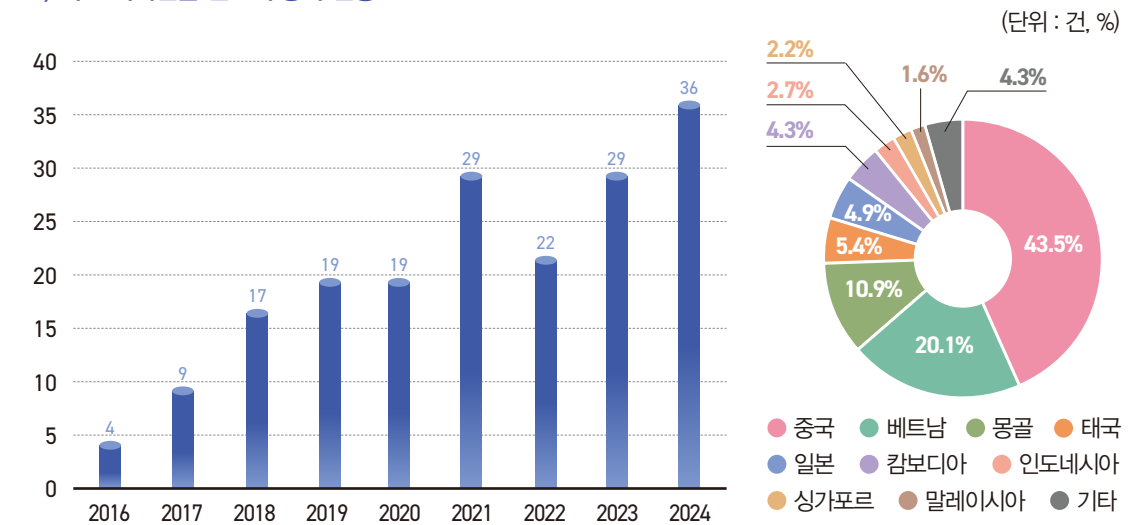
1. 아시아

● 아시아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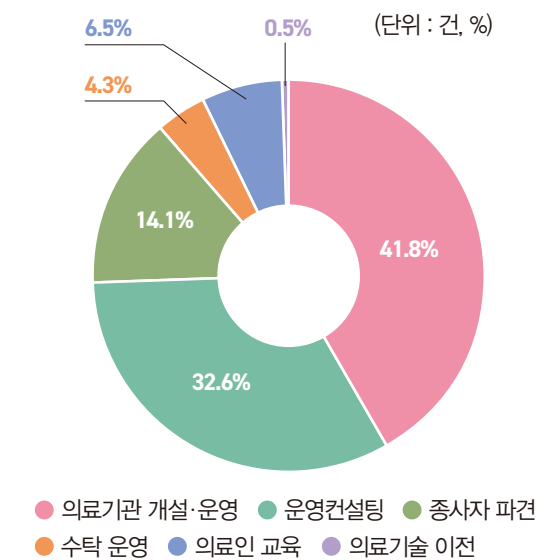
*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아시아 진출은 184건으로 전체 73.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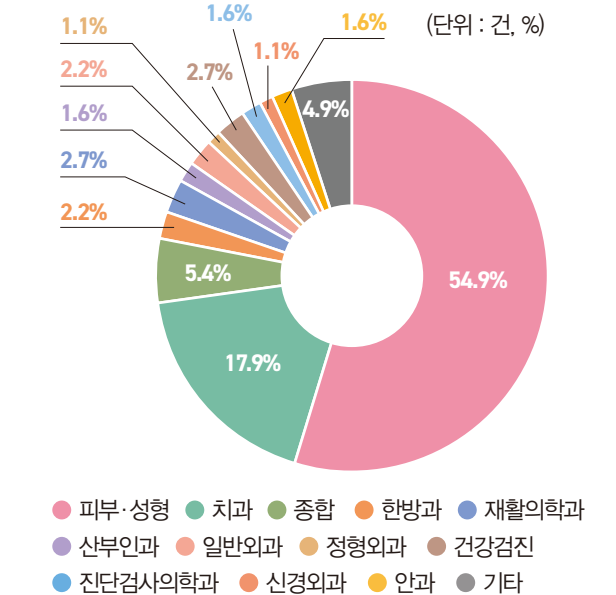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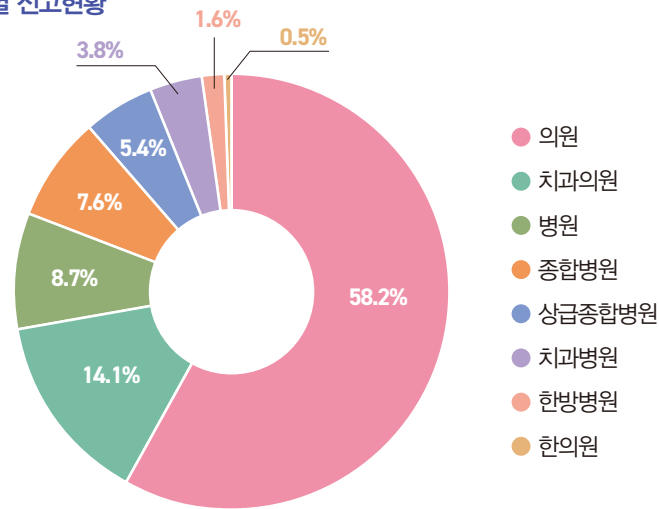
2)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3) 진출과목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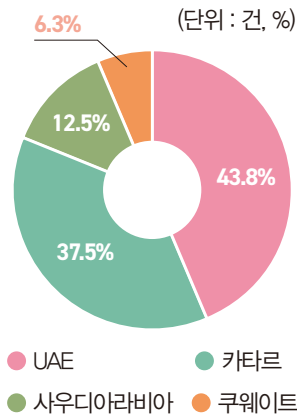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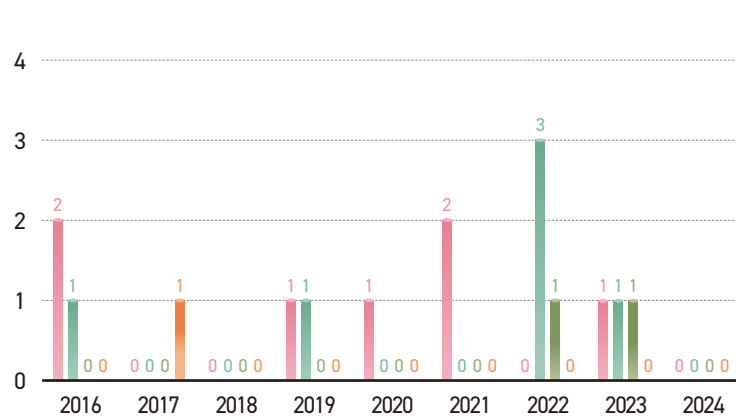
4) 의료기관 종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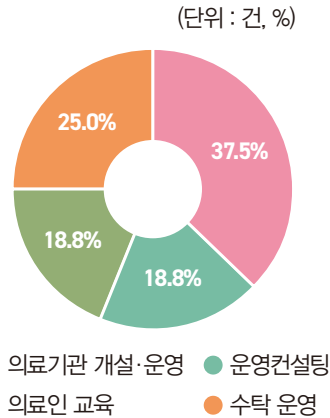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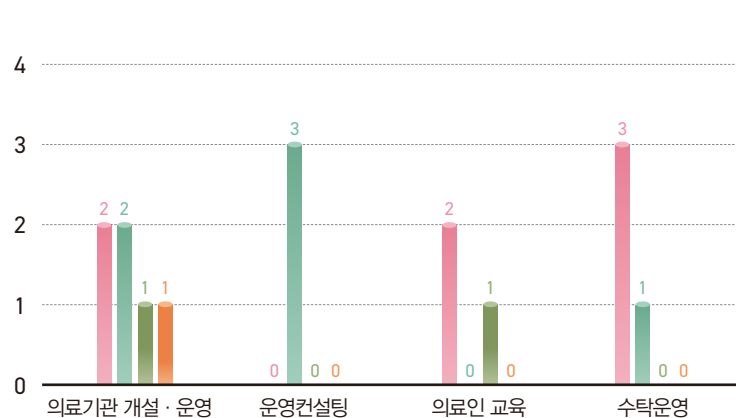
2. 중동

- 중동 4개국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중동 진출은 16건으로 전체 6.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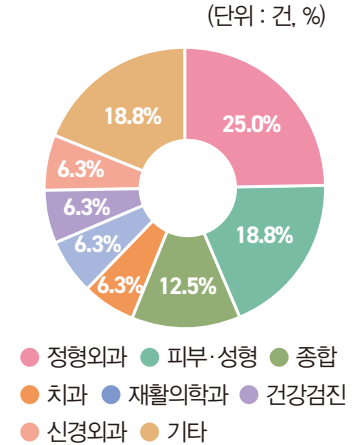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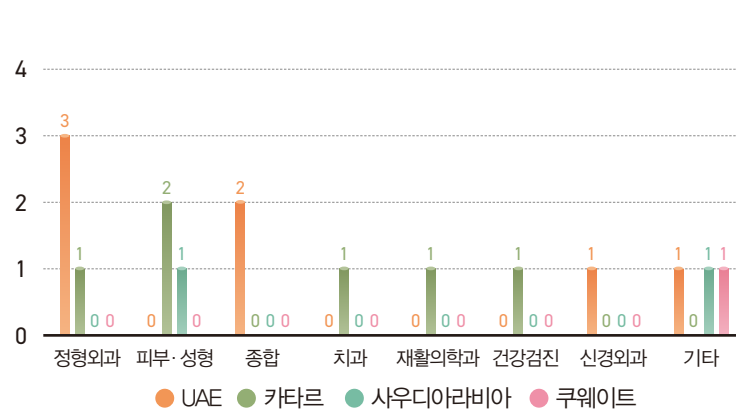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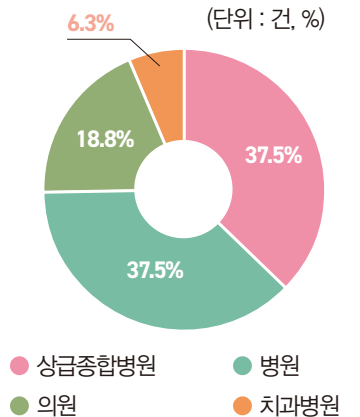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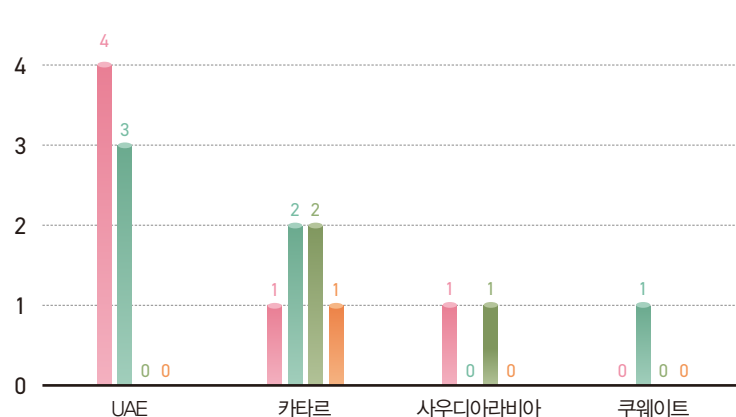
2)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3) 진출과목별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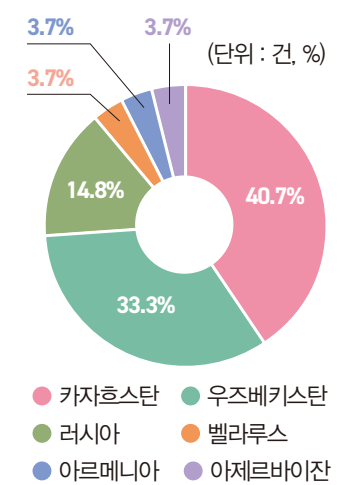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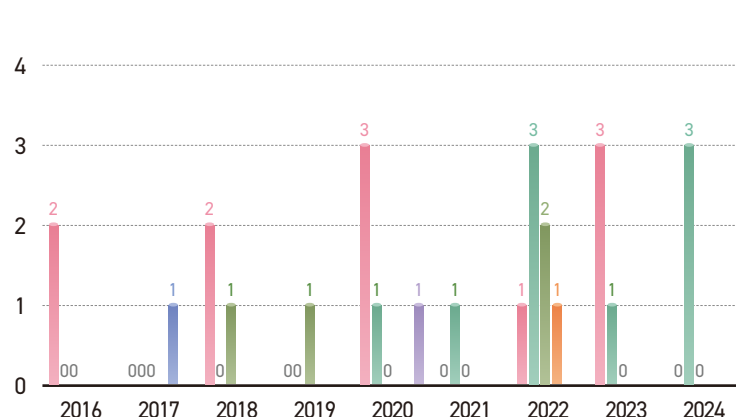
4) 의료기관 종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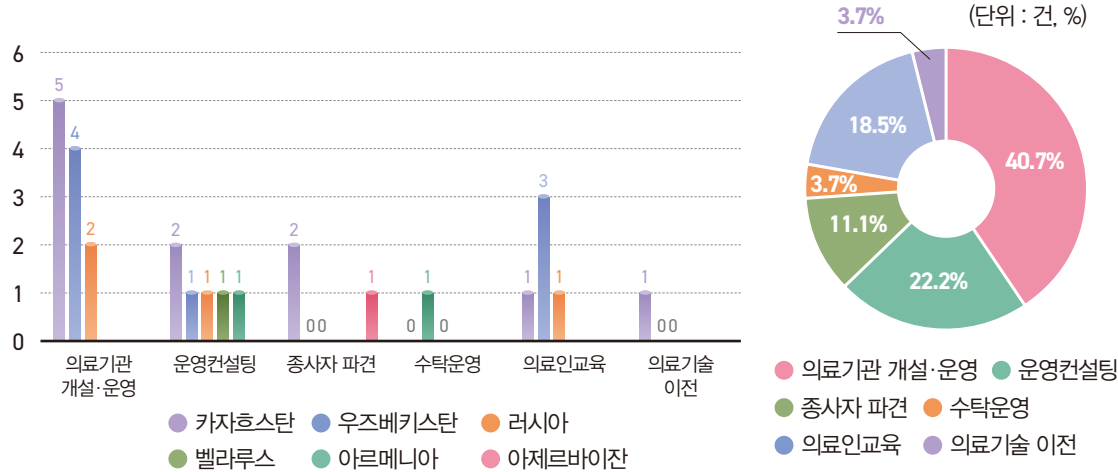
3.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
- 의료 해외진출 249건 중 러시아·중앙아시아 진출은 27건으로 전체 10.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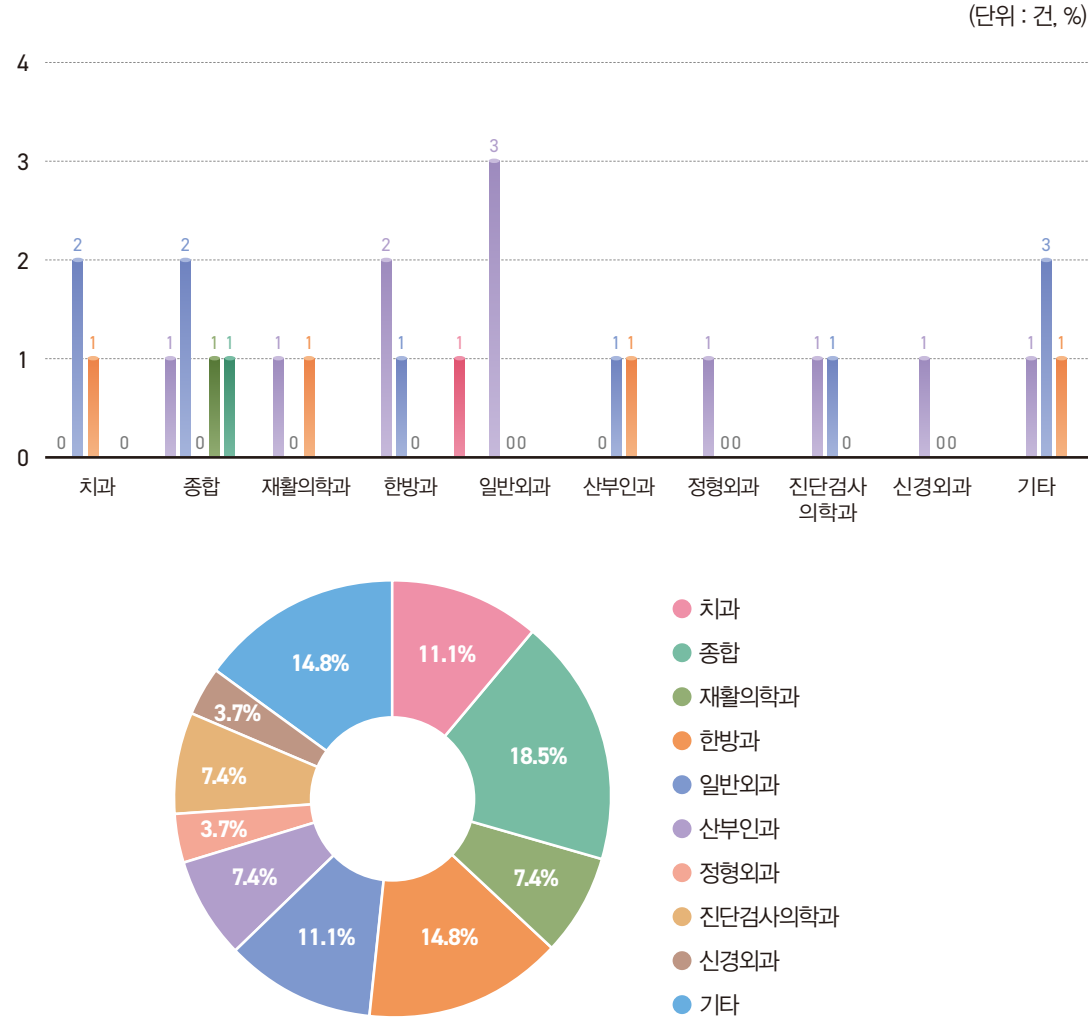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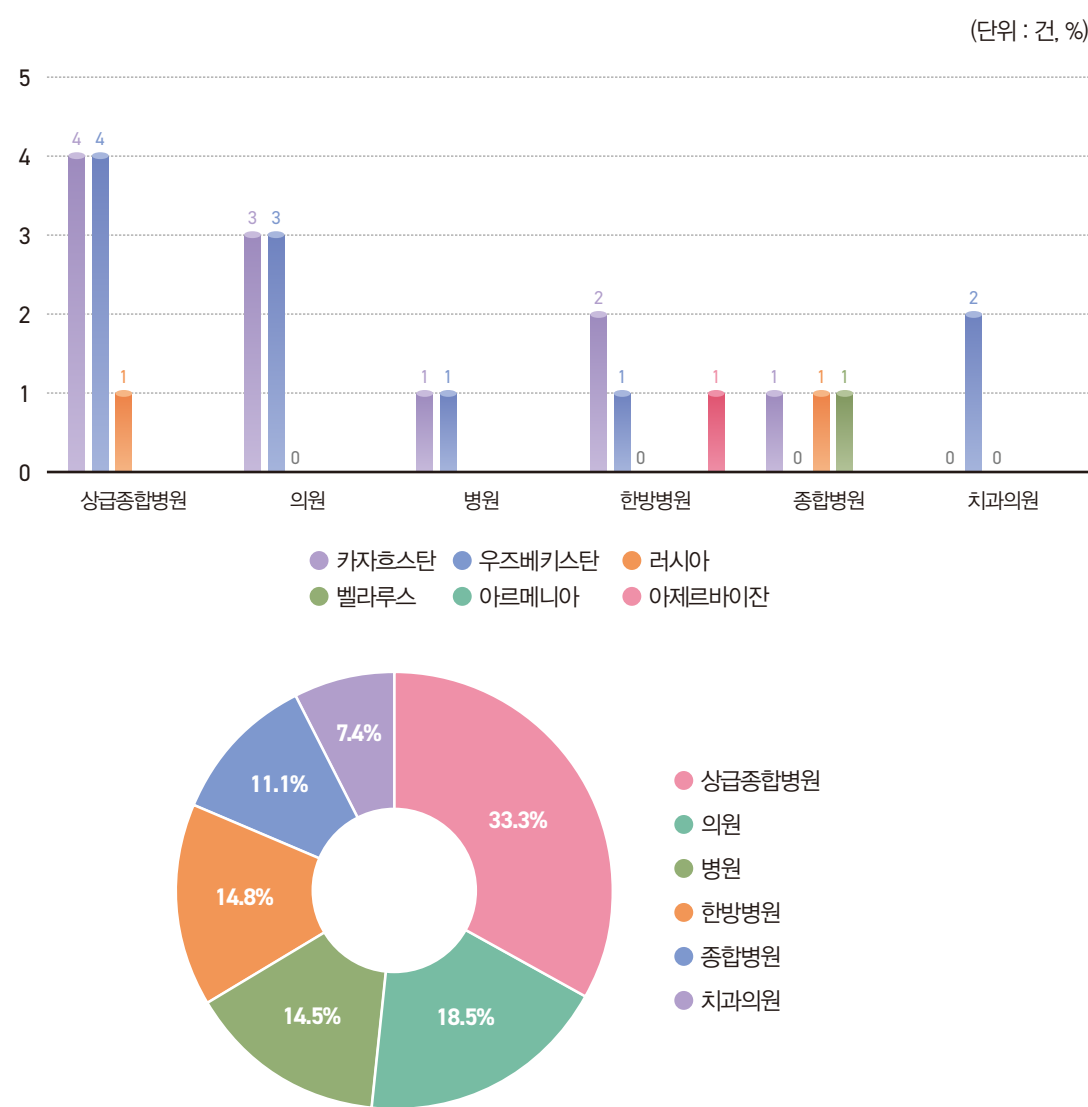
2)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3) 진출과목별 신고 현황



4) 의료기관 종별 신고현황



Part 3

요약 및 시사점



1. 의료 해외진출 최근 5개년 현황 요약
2. 의료 해외진출 현황 요약
3. 의료 해외진출 현황 시사점

01 | 의료 해외진출 최근 5개년 현황 요약

(단위: 건, 수,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진출건수	25건	34건	37건	42건	45건
진출국가	8개국	9개국	17개국	16개국	15개국
1위	중국 10(40.0)	중국 14(41.2)	중국 7(18.9)	중국 10(23.8)	몽골 8(17.8)
			베트남 7(18.9)		
2위	베트남 4(16.0)	베트남 7(20.6)	카타르 3(8.1)	베트남 7(16.7)	중국 7(15.6)
			미국 3(8.1)		
			우즈베키스탄 3(8.1)		
3위	몽골 3(12.0)	일본 4(11.8)	러시아 2(5.4)	미국 4(9.5)	베트남 6(13.3)
	카자흐스탄 3(12.0)		인도네시아 4(9.5)		
진출유형					
1위	의료기관 개설 · 운영 9 (36.0)	운영컨설팅 17 (50.0)	운영컨설팅 17 (45.9)	의료기관 개설 · 운영 28 (66.7)	의료기관 개설 · 운영 30(66.7)
2위	운영컨설팅 8 (32.0)	의료기관 개설 · 운영 11 (32.4)	의료기관 개설 · 운영 10 (27.0)	중사자 파견 6 (14.3) 의료인 교육 6 (14.3)	운영컨설팅 7 (15.6)
3위	중사자 파견 6 (24.0)	수탁운영 6 (17.6)	의료인 교육 5 (13.5)		의료인 교육 6 (13.3)
진료과목					
1위	피부 · 성형 10 (40.0)	피부 · 성형20 (58.8)	피부 · 성형 17 (45.9)	피부 · 성형 14 (33.3)	피부 · 성형 24 (53.3)
2위	치과 6(24.0)	치과 6(17.6)	치과 6(16.2%)	치과 6(14.3) 한방과 6(14.3)	종합 4(8.9)
3위	한방 2(8.0)	한방 3(8.8)	산부인과 3(8.1%)		진단검사의학과 3(6.7) 영상의학과 3(6.7)
의료기관 종별					
1위	의원 13(52.0)	의원 20(58.8)	의원 19(51.4)	의원 19(45.2)	의원 25(55.6)
2위	치과의원 5 (20.0)	치과의원 6 (17.6)	상급종합병원 6 (16.2)	한의원 6(14.3)	상급종합병원 7 (15.6)
3위	병원 3(12.0)	병원 4(11.8)	종합병원 5(13.5)	종합병원 5(11.9)	병원 6(13.3)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진출병상 규모						
1위		병상 없음 13 (52.0)	병상 없음 17 (50.0)	병상 없음 19 (51.4)	병상 없음 31 (73.8)	병상 없음 23 (51.1)
2위		30~100병상 미만 6(24.0)	30~100병상 미만 9(26.5)	1~30병상 미만 10(27.0)	1~30병상 미만 7(16.7)	1~30병상 미만 17(37.8)
3위		1~30병상 미만 5(20.0)	1~30병상 미만 5(14.7)	100~300병상 미만 3(8.1)	30~100병상 미만 26(7.1)	30~100병상 미만 3(6.7)
자본투자 형태						
있음	단독투자	6(24.0)	9(26.5)	10(27.0)	10(23.8)	11(24.4)
	합작	13(52.0)	22(64.7)	5(13.5)	18(42.9)	12(26.7)
없음		6(24.0)	3(8.8)	22(59.5)	14(33.3)	22(48.9)
특수목적법인						
없음		19(76.0)	24(70.6)	34(91.9)	23(54.8)	29(64.4)
해외		6(24.0)	7(20.6)	3(8.1)	18(42.9)	12(26.7)
국내		0(0.0)	3(8.8)	0(0.0)	1(2.4)	4(8.9)
전담부서						
보유		23(92.0)	29(85.3)	26(70.3)	33(78.6)	36(80.0)
미보유		2(8.0)	5(14.7)	11(29.7)	9(21.4)	9(20.0)
인력고용형태						
해외파견인력		54(9.3)	55(13.1)	34(19.9)	82(10.4)	21(0.8)
해외상주인력		35(6.0)	35(8.3)	16(9.4)	45(5.7)	11(0.4)
현지인력		492(84.7)	330(78.6)	121(70.8)	662(83.9)	2,544(98.8)

02 | 의료 해외진출 현황 요약



- (총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후 총 249건이 신고되었으며, 연평균 20.7%의 증가율을 보임(CAGR, '16.6~'24.12)
- (진출국가) 진출국가 수는 총 34개국으로 중국 80건(32.1%), 베트남 37건(14.9%), 몽골 20건(8.0%) 순으로 나타남
 - '24년도 진출국가는 몽골(17.8%)과 중국(15.6%), 베트남(13.3%) 진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진출유형)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총 106건(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운영컨설팅 71건(28.5%), 종사자 파견 31건(12.4%) 순으로 확인됨
 - 특히 '24년도 진출유형의 경우, 운영컨설팅이 7건(15.6%)으로 전년대비 큰 증가율을 보임 ('23년 4.8% ⇨ '24년 15.6%)
- (진료과목) 피부·성형이 총 105건(42.2%), 치과 38건(15.3%), 종합 19건(7.6%), 한방 15건(6.0%) 순으로 나타남
 - '24년도 진료과목 또한 피부·성형 진출이 24건(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종합이 4건(9.5%), 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가 각각 3건(7.1%)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종별) 의원이 119건(47.8%), 상급종합병원 30건(12.0%), 치과의원·병원이 각 28건(11.2%) 순으로 나타남
 - '24년도 진출 의료기관 종별 또한 의원이 25건(55.6%)으로 가장 많았음
- (병상규모) 진출 병상 규모는 병상 없음이 136건(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30병상 미만 58건(23.3%), 30~100병상 미만 29건(11.6%) 순으로 나타남
 - '24년도 진출 병상 규모 또한 병상 없음이 23건(5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본투자) 자본투자 없이 진출한 것은 110건(44.2%), 자본투자가 동반된 것은 139건(55.8%)로 확인됨
 - 자본투자가 동반된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85건(61.2%), 운영컨설팅 35건(25.2%)이 대부분을 차지함
- (특수목적법인) 진출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은 69건(27.7%), 설립하지 않은 것은 180건(72.3%)으로 나타남
 -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60건(87.0%), 운영컨설팅 5건(7.2%), 수탁운영 4건(5.8%)으로 확인됨

- (전담부서)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207건(83.1%)으로 대부분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고용) 의료 해외진출 국내인력은 총 1,098명(해외파견인력 788명, 해외상주인력 310명)으로 직군은 의사가 386명(35.2%), 간호사 243명(22.1%) 순으로 나타남
 - 해외 현지인력 고용 현황은 총 7,059명으로 간호사 2,239명(31.7%), 행정인력 1,760명(24.9%), 의사 1,339명(19.0%) 순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소재지) 의료 해외진출 신고 249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의료기관 신고 건이 196건(78.7%)으로 전체 신고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03 | 의료 해외진출 현황 시사점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지로 직접 진출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엔데믹이 선언되었던 '23년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3) 이후, 의료기관 개설·운영 유형은 '20년 36.0%, '21년 32.4%, '22년 27.0%를 차지하였으나, '23년 66.7%, '24년 66.7%로 나타남
- 진출국가의 경우, 한국문화 친숙도가 높은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 신고건의 47.0%(11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24년에는 몽골 진출이 크게 늘어 첫 1위를 차지하였음('24년 8건, 17.8%)
- 진료과목의 경우, 피부·성형(105건, 44.3%) 및 치과(38건, 16.0%)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24년에는 피부·성형(24건, 58.5%)은 늘어난 반면, 치과 진출(1건, 2.4%)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4년 피부·성형의 진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종합(5과목 이상) 진출이 2순위,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진출이 3순위로 나타나는 등 진출 진료과가 다변화되고 있음
 - 치과 진출 비중은 '22년 16.2%, '23년 15.8%, '24년 2.4%로 감소하였음
-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유연한 대처와 시장선점 기회 확보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진출 순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베트남 내 경쟁이 심화되었고, 외국인 의사면허 제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사우디 Vision 2030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헬스케어 관련 분야 외국인 소유 범위가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완화될 예정이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며 국내 산후조리 서비스의 UAE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져, GCC 국가로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 발리 의료특구 개발이 진행되고,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로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개방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4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

집필자 | 임영이(의료해외진출단장) | 이지엽(의료해외진출기획팀장)
유성현(의료해외진출팀, 연구원)

문의 | 043-713-8956

- * 본 내용은 연구자 및 의료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 본 간행물은 의료해외진출 정보포털(www.khidi.or.kr/kohes)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